

정책연구 2002-02

2002정 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2002. 3

제주발전연구원

I.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지난 1997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가 시작된 이후 2001년과 2002년에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서 발전하는 등 북제주군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지역의 경제·문화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화합과 위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따라서 관람객의 만족도 정도, 지역민의 참여 정도, 지역경제에의 효과 등 다양한 들불축제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개선되고 세계적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조화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행해진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세계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언론보도 및 여론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축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 축제관람객의 행태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개선점 등을 파악한다.
 -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계측한다.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와 자료분석(literature study and data analysis)
-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case study)
- 관람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empirical study)

4.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2년 2월 23일~24일(축제기간 2일간)
- 공간적 범위 :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약 20만평)
- 내용적 범위
 - 제1장은 연구의 개요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였다.
 - 제2장은 축제 후의 신문보도 내용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 부분으로 이를 통하여 축제의 현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제3장은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분석 부분으로 들불축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행태와 행사프로그램, 편의시설, 관련 상품 등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분석하였다.
 - 제4장은 들불축제에 따른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을 추정하는 부분으로 축제가 유인한 순관광객 수와 이들의 소비액 등을 추정하였다.
 - 제5장은 들불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관광객, 관광수입, 산출, 고용 그리고 소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제6장은 종합요약 및 정책제언 부분으로 제분석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들불축제의 개선점 및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Ⅱ. 신문보도 및 여론 내용분석

1. 분석 목적

-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특히 적합한 질적 연구기법 중의 하나로서 인간의 행태를 직접 관찰하거나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하지 않고 조사자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관찰·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현상을 고찰하고, 향후의 변화 흐름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탐색할 수 있다.
- 즉, 들불축제 관련 신문보도 및 여론에 대한 내용분석의 목적은 들불축제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들불축제는 어느 수준이며, 그 특성은 무엇이고, 향후 들불축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화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2. 분석 방법 및 범위

-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2년 2월 23일 들불축제 개막 이후 3월 12일까지 18일간 보도되고 제안된 내용들이다.
- 분석의 대상범위는 제주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이상 가나다 순)에 게재된 들불축제와 관련된 기사들과 북제주군 홈페이지 게시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의견 등이다.
- 분석을 위해서는 3개 일간지와 북제주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들불축제 관련 기사 및 의견을 크게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홍보성(캠페인성)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 결과

- 검색결과 들불축제 관련 내용은 3개 일간지의 기사 42건, 북제주군 게시판에 게시된 관련 내용 13건 등 총 55건이 본 분석에 관련된 기사와 내용으로 검색되었다.
- 총 55건의 기사 및 여론은 게재지별로는 제민일보 17건, 제주일보 4건, 한라일보 21건, 북군 홈페이지 13건이었고, 내용별로는 긍정적 내용 13건, 부정적 내용 6건, 홍보(캠페인성) 내용 36건으로 나타났다.

<표 2-1> 기사 및 의견내용 분석

구 분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북군 홈페이지	합계
긍정적 내용	3건	1건	4건	5건	13건 23.6%
부정적 내용	-	1건	-	5건	6건 10.9%
홍보(캠페인)성 내용	14건	2건	17건	3건	36건 65.5%
합계	17건 30.9%	4건 7.3%	21건 38.2%	13건 23.6%	55건 100%

가. 긍정적 내용

- 제주 내음이 물씬 풍기는 향토색 짙은 문화공연으로 지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더욱이 외국 자매결연도시 공연단을 통한 그 나라 문화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2002년 월드컵 홍보를 겸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세계적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 군단위 축제로서는 전국단위 축제 못지 않은 행사내용을 선보였고, 결집된 북군의 행정력과 도민들의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가 되었다.
- 관주도의 행사라는 이유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어느 축제에 못지 않은 행사내용과 마지막 불꽃점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 전국에서 유일한 오름태우기 축제로 타 축제와는 차별성이 있었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원색질은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옛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 풍부한 먹거리 제공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자생단체에서 무료로 제공한 차는 복군의 훈훈한 인심을 대변했다.

나. 부정적 내용

-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외국인참가단을 초청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벌어지는 축제에서 재래식 화장식은 성의부족이고, 또한 평탄하지 못한 언덕에 세워진 화장실은 이용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는 붕괴의 위험마저 있다.
- 불꽃 점화는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일시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여 교통대란을 자초하였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 조명도 없이 깜깜한 들판에서 주차선도 없어진 주차장을 헤매는 풍경이 속출한 것은 축제의 뒷맛을 흐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 행사용 폭죽 외에도 일부 상인들이 판매하는 폭죽이 남발된 것은 물론이고, 상인들이 일부 어린이에게 마저 폭죽을 판매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잡상인들이 너무 난무하여 행사장 일대가 혼잡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상품이라도 상인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등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전혀 없었다.
- 축제가 끝난지 일주일여가 지났는데도 타다만 통나무들과 잔재들, 부러진 책상과 의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 등 세계적 축제를 지향하는 축제로서는 그 뒷마무리가 너무 소홀하였다.
-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인방안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안이 미흡하였고, 축제안내와 앰프통제 및 진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Ⅲ.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분석

1. 조사 설계

가. 조사 목적

- 들불축제 관람객의 참여행태 및 축제의 행사프로그램, 편의시설, 접근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파악하여 들불축제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

- 모집단 : 들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과 제주도민
- 표본크기 : 495명
- 표본추출방법 : 무작위 표본추출법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 1대1 개별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 조사기간 : 2002년 2월 23일 ~ 2002년 2월 24일

다.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 조사요원들에게 설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여 직접 방문을 통한 자기기입식설문지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 코딩과정을 거쳐,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거주지별, 여행의 주된

목적별, 들불축제 관람회수 등의 의견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평균차이 검정인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 설문지는 총 550부를 배포하여 53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530부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지 35부를 제외한 495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3-1> 설문회수 현황

배포	회수	회수율	채택	채택율
550부	530부	96.3%	495부	93.3%

2. 분석 결과

가. 응답자 특성

- 성별은 남성 274명(55.4%), 여성 221명(44.6%)으로 나타났다.
- 연령은 20세 미만 25명(5.1%), 21~30세 148명(29.9%), 31~40세 194명(39.2%), 41~50세 85명(17.2%), 50대 이상 43명(8.7%)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은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228명(46.1%), 북제주군 161명(32.5%), 타시·도 106명(21.4%)으로 나타났다.
- 학력은 중졸이하 37명(7.5%), 고등학교재/졸 188명(38.1%), 대학재/졸 256명(51.8%), 대학원재/졸 13명(2.6%)으로 나타났다.
- 직업은 전문직/자유직 63명(12.8%), 관리/사무직 74명(15.0%), 자영업 72명(14.6%), 생산직 5명(1.0%), 판매/서비스직 52명(10.6%), 농·수·축산업 46명(9.3%), 학생 76명(15.4%), 주부 71명(14.4%) 등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 160명(35.6%), 100~150만원 130명(28.9%), 151~200만원 94명(20.9%), 201~250만원 23명(5.1%), 251~300만원 20명(4.4%), 301만원 이상 23명(5.1%)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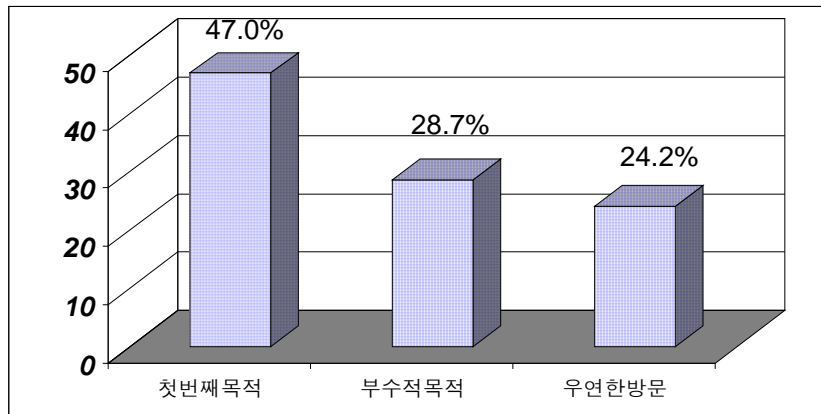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
성 별	남성	274	55.4
	여성	221	44.6
	전체	495	100.0
연 령	20세 미만	25	5.1
	21~30세	148	29.9
	31~40세	194	39.2
	41~50세	85	17.2
	50대 이상	43	8.7
	전체	495	100.0
거주지역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228	46.1
	북제주군	161	32.5
	타 시·도	106	21.4
	전 체	495	100.0
학 력	중졸 이하	37	7.5
	고등학교 재/졸	188	38.1
	대학 재/졸	256	51.8
	대학원 재/졸	13	2.6
	전체	494	100.0
직 업	전문직/자유직	63	12.8
	관리/사무직	74	15.0
	자영업	72	14.6
	생산직	5	1.0
	판매/서비스직	52	10.6
	농/수/축산업	46	9.3
	학생	76	15.4
	주부	71	14.4
	무직	11	2.2
	기타	22	4.5
	전 체	492	10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0	35.6
	100~150만원	130	28.9
	151~200만원	94	20.9
	201~250만원	23	5.1
	251~300만원	20	4.4
	301만원 이상	23	5.1
	전 체	450	100.0

나. 관람객 행태 및 집단별 인식차이 분석

1) 방문 목적

- 들불축제 참가가 금번 여행의 주된 목적이라는 질문에 첫 번째 목적 231명(47.0%), 부수적 목적 141명(28.7%), 우연한 방문 119명(24.2%)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여행이 주된 목적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과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과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들은 첫번째 목적으로 들불축제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타시·도 관광객의 경우 우연한 방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두번째 들불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첫번째 목적으로 들불축제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번 이상 들불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부수적 목적으로 들불축제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3> 방문목적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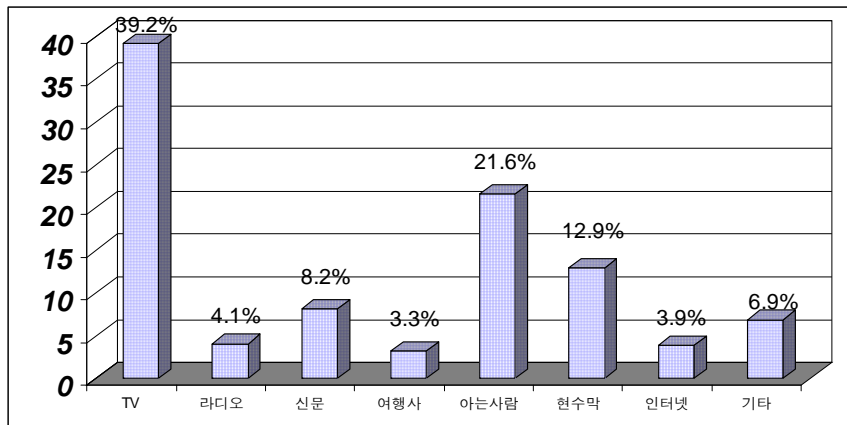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첫번째	부수적	우연한 방문	계	통계량
제주도	112(49.8)	70(31.1)	43(19.1)	225(100.0)	X ² =36.926 p=0.000
북제주군	85(53.1)	48(30.0)	27(16.9)	160(100.0)	
타 시·도	34(32.1)	23(21.7)	49(46.2)	106(100.0)	
처음	149(49.8)	66(22.1)	84(28.1)	299(100.0)	X ² =34.678 p=0.000
두번	53(49.1)	30(27.8)	25(23.1)	108(100.0)	
세번이상	27(33.3)	44(54.3)	10(12.4)	81(100.0)	

2) 정보원

- 들불축제에 관한 정보원에 대해 텔레비전 192명(39.2%), 지인 106명(21.6%), 현수막 63명(12.9%), 신문 40명(8.2%), 기타 34명(6.9%), 라디오 20명(4.1%), 인터넷 19명(3.9%), 여행사 16명(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축제 정보원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텔레비전(49.8%), 타 시·도 관광객 텔레비전(27.6%) 등으로 나타나 제주도민과 타 시·도 관광객인 경우 텔레비전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북제주군민인 경우 지인(34.2%)으로 나타나 지인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인 사람들인 경우 텔레비전(40.8%), 부수적 목적인 사람들인 경우 텔레비전(42.1%),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텔레비전(30.5%)으로 나타나 텔레비전을 통해 들불축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두번째, 세번째 이상 들불축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텔레비전을 통해 축제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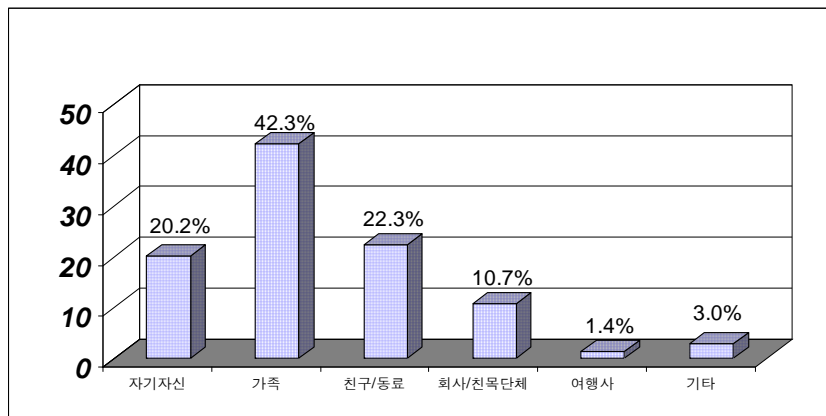
<표 3-4> 정보원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구 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여행사	지인	현수막	인터넷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113 (49.8)	9 (4.0)	23 (10.1)	3 (1.3)	34 (15.0)	32 (14.1)	4 (1.8)	9 (4.0)	227 (100.0)	$X^2=85.450$ $p=0.000$
북제주군	50 (31.6)	7 (4.4)	12 (7.6)	1 (0.6)	54 (34.2)	13 (8.2)	4 (2.5)	17 (10.8)	158 (100.0)	
타 시·도	29 (27.6)	4 (3.8)	5 (4.8)	12 (11.4)	18 (17.1%)	18 (17.1)	11 (10.5%)	8 (7.6)	105 (100.0)	
첫 번째 목적	93 (40.8)	11 (4.8)	18 (7.9)	4 (1.8)	50 (21.9)	20 (8.8)	14 (6.1)	18 (7.9)	228 (100.0)	$X^2=30.047$ $p=0.008$
부수적 목적	59 (42.1)	6 (94.3)	13 (9.3)	6 (4.3)	25 (17.9)	16 (11.4)	3 (2.1)	12 (8.6)	140 (100.0)	
우연한 방문	36 (30.5)	3 (2.5)	9 (7.6)	6 (5.1)	31 (26.3)	27 (22.9)	2 (1.7)	4 (3.4)	118 (100.0)	
처음	111 (36.8)	10 (3.3)	18 (6.0)	14 (4.6)	79 (26.2)	43 (14.2)	10 (3.3)	17 (5.6)	302 (100.0)	$X^2=48.591$ $p=0.000$
두번	56 (51.9)	7 (6.5)	12 (11.1)	0 (0.0)	17 (15.7)	8 (7.4)	5 (4.6)	3 (2.8)	108 (100.0)	
세번이상	25 (32.1)	3 (3.8)	10 (12.8)	2 (2.6)	8 (10.3)	12 (15.4)	4 (5.1)	14 (17.9)	78 (100.0)	

3) 관람여부 결정 형태

- 들불축제 참여에 대한 관람여부 결정형태는 가족 209명(42.3%), 친구·동료 110명(22.3%), 본인 100명(20.2%), 회사·친목단체 53명(10.7%), 기타 15명(3.0%), 여행사 7명(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축제 관람여부 결정 형태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가족(53.3%), 북제주군민 가족(27.3%), 타 시·도 관광객 가족(41.5%)으로 나타나 관람여부 결정형태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43.9%), 부수적 목적인 사람들의 경우 가족(39.0%), 타 시·도 관광객인 경우 가족(43.7%)으로 나타나 관람여부 결정형태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44.6%),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43.5%),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32.1%)으로 나타나 관람여부 결정형태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관람여부 결정형태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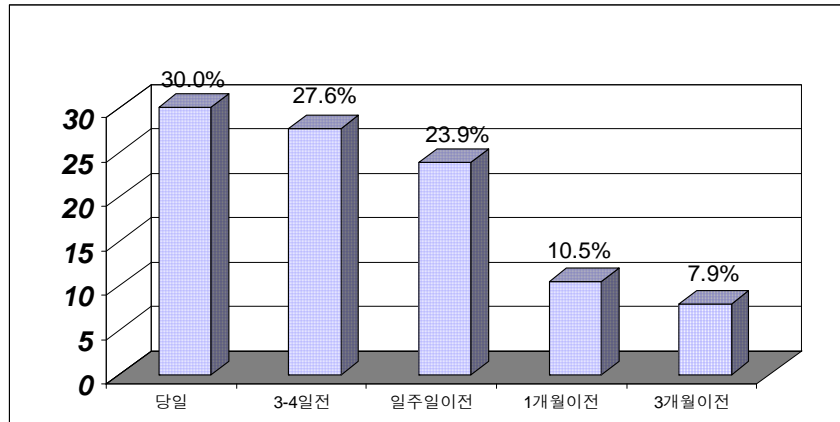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본인	가족	친구/ 동료	회사/친 목단체	여행사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46 (20.3)	121 (53.3)	38 (16.7)	15 (6.6)	3 (1.3)	4 (1.8)	227 (100.0)	X ² =42.584 p=0.000
북제주군	36 (22.4)	44 (27.3)	42 (26.1)	31 (19.3)	1 (0.6)	7 (4.3)	161 (100.0)	
타 시·도	18 (17.0)	44 (41.5)	30 (28.3)	7 (6.6)	3 (2.8)	4 (3.8)	106 (100.0)	
첫번째 목적	55 (23.9)	101 (43.9)	40 (17.4)	25 (10.9)	1 (0.4)	8 (3.5)	230 (100.0)	X ² =21.442 p=0.018
부수적 목적	26 (18.4)	55 (39.0)	30 (21.3)	21 (14.9)	4 (2.8)	5 (3.5)	141 (100.0)	
우연한 방문	19 (16.0)	52 (43.7)	38 (31.9)	6 (5.0)	2 (1.7)	2 (1.7)	119 (100.0)	
처음	50 (16.5)	135 (44.6)	78 (25.7)	26 (8.6)	4 (1.3)	10 (3.3)	303 (100.0)	X ² =29.286 p=0.001
두번	27 (25.0)	47 (43.5)	22 (20.4)	11 (10.2)	0 (0.0)	1 (0.9)	108 (100.0)	
세번이상	23 (28.4)	26 (32.1)	9 (11.1)	16 (19.8)	3 (3.7)	4 (4.9)	81 (100.0)	

5) 관람여부 결정시기

- 들불축제 참여에 대한 관람여부 결정시기는 당일 148명(30.0%), 3~4일전 136명(27.6%), 일주일 이전 118명(23.9%), 1개월 이전 52명(10.5%), 3개월 이전 39명(7.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축제 관람여부 결정시기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3~4일전(33.0%), 북제주군민 1주일 이전(28.0%), 타 시·도 관광객 당일(47.6%)로 나타났다. 타 시·도 관광객인 경우 당일에 들불축제에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4일전(27.4%), 1주일 이전(27.4%)에 참가결정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4일전(30.7%)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우연한 방문을 한 사람들의 경우 당일(54.6%)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당일(37.1%),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1주일 이전(30.6%),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개월 이전(32.1%)으로 나타났다.

<표 3-6> 관람여부 결정시기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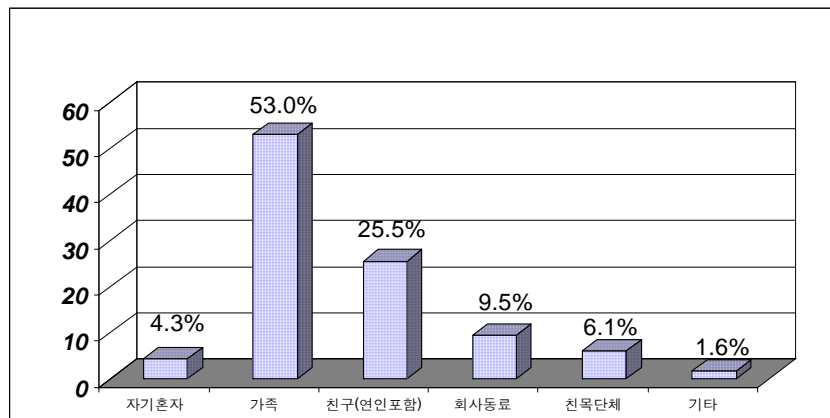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당일	3~4일전	1주일 이전	1개월 이전	3개월이전	계	통계량
제주도 북제주군 타 시·도	64(28.2)	75(33.0)	53(23.3)	24(10.6)	11(4.8)	227(100.0)	$\chi^2=39.376$ $p=0.000$
첫번째 목적	53(23.0)	63(27.4)	63(27.4)	34(14.8)	17(7.4)	230(100.0)	
부수적 목적	29(20.7)	43(30.7)	37(26.4)	13(9.3)	18(12.9)	140(100.0)	
우연한 방문	65(54.6)	28(23.5)	17(14.3)	5(4.2)	4(3.4)	119(100.0)	$\chi^2=55.121$ $p=0.000$
처음	112(37.1)	91(30.1)	63(20.9)	25(8.3)	11(3.6)	302(100.0)	
두번	30(27.8)	31(28.7)	33(30.6)	12(11.1)	2(1.9)	108(100.0)	
세번이상	6(7.4)	12(14.8)	22(27.2)	15(18.5)	26(32.1)	81(100.0)	$\chi^2=105.959$ $p=0.000$

5) 관람 동행인

- 들불축제 관람 동행인은 가족 262명(53.0%), 친구(연인포함) 126명(25.5%), 회사 동료 47명(9.5%), 친목단체 30명(6.1%), 혼자 21명(4.3%), 기타 8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축제 관람 동행인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가족(65.6%), 북제주군민 가족(36.0%), 타 시·도 관광객 가족(51.9%)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들불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54.8%),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47.5%), 우연한 방문을 한 사람들 가족(57.1%)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들불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53.1%),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62.0%),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가족(40.7%)으로 나타나 주로 가족과 함께 들불축제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 동반여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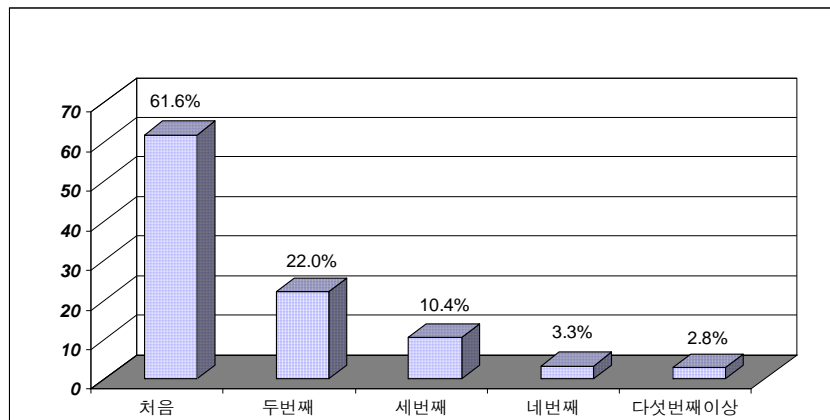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혼자	가족	친구	회사동료	친목단체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7(3.1)	149(65.6)	46(20.3)	14(6.2)	8(3.5)	3(1.3)	227(100.0)	$X^2=48.769$ $p=0.000$
북제주군	7(4.3)	58(36.0)	47(29.2)	27(16.8)	19(11.8)	3(1.9)	161(100.0)	
타 시·도	7(6.6)	55(51.9)	33(31.1)	6(5.7)	3(2.8)	2(1.9)	106(100.0)	
첫번째목적	15(6.5)	126(54.8)	54(23.5)	13(5.7)	18(7.8)	4(1.7)	230(100.0)	$X^2=37.983$ $p=0.000$
부수적목적	4(2.8)	67(47.5)	30(21.3)	27(19.1)	9(6.4)	4(2.8)	141(100.0)	
우연한방문	2(1.7)	68(57.1)	40(33.6)	6(5.0)	3(2.5)	0(0.0)	119(100.0)	
처음	11(3.6)	161(53.1)	91(30.0)	20(6.6)	16(5.3)	4(1.3)	303(100.0)	$X^2=43.730$ $p=0.000$
두번	7(6.5)	67(62.0)	19(17.6)	7(6.5)	8(7.4)	0(0.0)	108(100.0)	
세번이상	3(3.7)	33(40.7)	15(18.5)	20(24.7)	6(7.4)	4(4.9)	81(100.0)	

6) 관람 회수

- 들불축제 관람회수에 대해서는 첫번째 303명(61.6%), 두번째 108명(22.0%), 세번째 51명(10.4%), 네번째 16명(3.3%), 다섯번째 이상 14명(2.8%)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축제 관람회수에 대한 빈도분석



<표 3-8> 관람회수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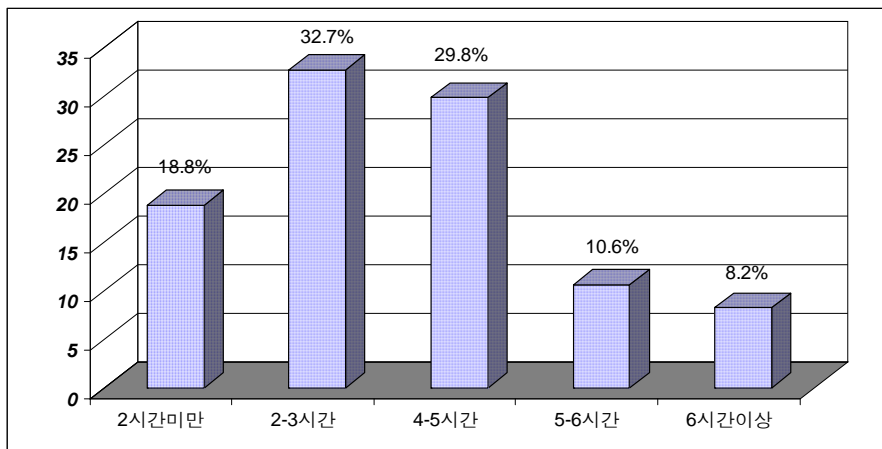
구 분	첫번째	두번째	세 번째 이상	계
제주도	141(62.1)	58(25.6)	28(12.3)	227(100.0)
북제주군	71(44.4)	41(25.6)	48(30.0)	160(100.0)
타 시·도	91(86.7)	9(8.6)	5(4.7)	105(100.0)

- 거주지역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민들은 첫번째 방문인 경우 141명(62.1%), 두번째 방문인 경우 58명(25.6%), 세번째 이상 방문인 경우 28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민은 첫번째 방문인 경우 71명(44.4%), 세번째 이상 방문인 경우 48명(30.0%), 두번째 방문인 경우 41명(25.6%) 순으로 나타났으며, 타 시·도 관광객은 첫번째 방문인 경우 91명(86.7%), 두번째 방문인 경우 9명(8.6%), 세번째 이상 방문인 경우 5명(4.7%)으로 나타났다.

7) 축제장에서 소비 시간

- 축제장에서 소비한 시간에 대해 2~3시간 160명(32.7%), 4~5시간 146명(29.8%), 2시간 미만 92명(18.8%), 5~6시간 52명(10.6%), 6시간 이상 40명(8.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축제장에서 소비한 시간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2~3시간(34.5%), 북제주군민 4~5시간(31.7%), 타시·도 관광객 2~3시간(40.6%)으로 나타나 주로 축제장안에서 2~3시간을 체재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2~3시간(34.1%),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5시간(28.6%), 우연한 방문을 한 사람들의 경우 2~3시간(37.6%)으로 나타나 주로 축제장안에서 2~3시간을 체재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2~3시간(40.1%),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5시간(33.3%),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5시간

(30.9%)로 나타나 축제장안에서 4~5시간을 체재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축제장에서 소비한 시간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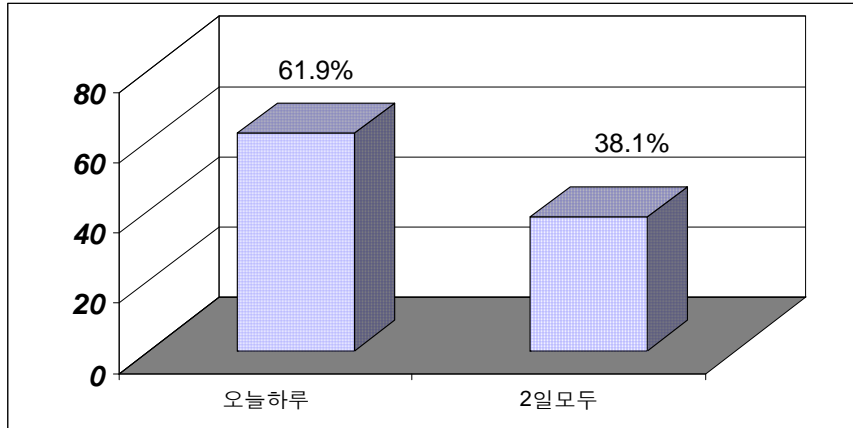
구 분	2시간미만	2~3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계	통계량
제 주 도	42(18.8)	77(34.5)	73(32.7)	20(9.0)	11(4.9)	223(100.0)	$\chi^2=28.260$ $p=0.000$
북제주군	23(14.3)	40(24.8)	51(31.7)	25(15.5)	22(13.7)	161(100.0)	
타 시·도	27(25.5)	43(40.6)	22(20.8)	7(6.6)	7(6.6)	106(100.0)	
첫번째 목적	37(16.2)	78(34.1)	69(30.1)	28(12.2)	17(7.4)	229(100.0)	$\chi^2=15.789$ $p=0.046$
부수적 목적	27(19.3)	37(26.4)	40(28.6)	18(12.9)	18(12.9)	140(100.0)	
우연한 방문	28(23.9)	44(37.6)	34(29.1)	6(5.1)	5(4.3)	117(100.0)	
처음	60(20.1)	120(40.1)	84(28.1)	21(7.0)	14(4.7)	299(100.0)	$\chi^2=70.010$ $p=0.000$
두번	20(18.5)	29(26.9)	36(33.3)	19(17.6)	4(3.7)	108(100.0)	
세번이상	11(13.6)	11(13.6)	25(30.9)	12(14.8)	22(27.2)	81(100.0)	

8) 축제기간중 관람일 수

- 축제관람 예정일 수에 대해 하루 299명(612.9%), 이틀 184명(38.1%)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하루(72.3%), 북제주군민 이틀(56.9%), 타 시·도 관광객 하루(67.0%)로 나타나 제주도민(북제주군민 제외)과 관광객은 하루예정으로 들불축제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하루(73.9%),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하루(53.3%),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이틀(74.0%)로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3-8> 축제기간중 관람일 수에 대한 빈도분석



<표 3-10> 축제기간중 관람일 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단위 : 명,%)

구 분	하루	이틀	계	통계량
제주도	162(72.3)	62(27.7)	224(100.0)	$\chi^2=34.316$ $p=0.000$
북제주군	66(43.1)	87(56.9)	153(100.0)	
타시·도	71(67.0)	35(33.0)	106(100.0)	
첫번째 목적	142(62.8)	84(37.2)	226(100.0)	$\chi^2=5.390$ $p=0.068$
부수적 목적	74(54.4)	62(45.6)	136(100.0)	
우연한 방문	80(68.4)	37(31.6)	117(100.0)	
처음	221(73.9)	78(26.1)	299(100.0)	$\chi^2=63.601$ $p=0.000$
두번	56(53.3)	49(46.7)	105(100.0)	
세번 이상	20(26.0)	57(74.0)	77(100.0)	

9) 숙박 예정일 수

- 숙박 예정일 수에 대해 3박4일 34명(36.2%), 2박3일 22명(23.4%), 4박5일이상 20명(21.3%), 1박2일 13명(13.8%), 당일 5명(5.3%)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1> 숙박 예정일 수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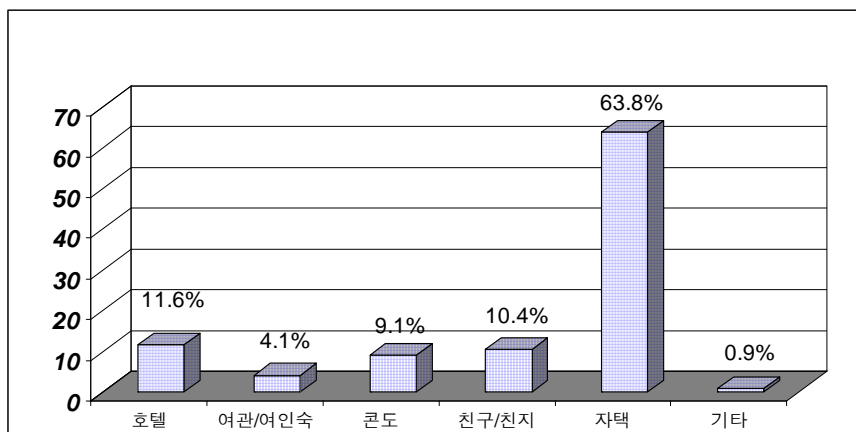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당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상	계
타 시·도	5(5.3)	13(13.8)	22(23.4)	34(36.2)	20(21.3)	94(100.0)

10) 숙박장소

- 숙박장소에 대해 자택 203명(63.8%), 호텔 37명(11.6%), 친구·친지집 33명(10.4%), 콘도 29명(9.1%), 여관·여인숙 13명(4.1%), 기타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숙박장소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1$ 수준에서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민 자택(89.8%), 북제주군민 자택(86.8%), 타 시·도 관광객 호텔(31.0%)로 나타났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75.7%),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66.7%), 우연히 방문을 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38.5%)으로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55.7%),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80.0%),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자택(76.7%)으로 나타났다.

<표 3-12> 숙박장소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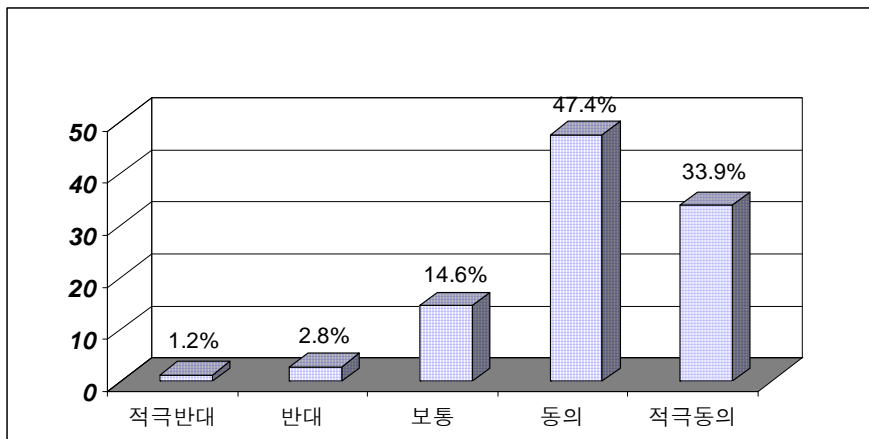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호텔	여관· 여인숙	콘도	친구/ 친지	자택	기타	계	통계량
제주도	4(3.1)	2(1.6)	2(1.6)	4(3.1)	114(89.8)	1(0.8)	127(100.0)	$X^2=189.379$ $p=0.000$
북제주군	2(2.2)	0(0.0)	3(3.3)	6(6.6)	79(86.8)	1(1.1)	91(100.0)	
타 시·도	31(31.0)	11(11.0)	24(24.0)	23(23.0)	10(10.0)	1(1.0)	100(100.0)	
첫번째목적	8(5.6)	7(4.9)	7(4.9)	10(6.9)	109(75.7)	3(2.1)	144(100.0)	$X^2=42.983$ $p=0.000$
부수적목적	12(12.5)	1(1.0)	8(8.3)	11(11.5)	64(66.7)	0(0.0)	96(100.0)	
우연한방문	17(21.8)	5(6.4)	14(17.9)	12(15.4)	30(38.5)	0(0.0)	78(100.0)	
처음	27(13.3)	10(4.9)	24(11.8)	27(13.3)	113(55.7)	2(1.0)	203(100.0)	$X^2=24.116$ $p=0.007$
두번	9(12.9)	1(1.4)	2(2.9)	1(1.4)	56(80.0)	1(1.4)	70(100.0)	
세번이상	1(2.3)	2(4.7)	3(7.0)	4(9.3)	33(76.7)	0(0.0)	43(100.0)	

11) 축제육성에 대한 동의여부

- 들불축제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 적극 반대 6명(1.2%), 반대 14명(2.8%), 보통 72명(14.6%), 동의 233명(47.4%), 적극 동의 167명(33.9%)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축제육성에 대한 동의여부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방문목적별로 보면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20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06점, 우연한 방문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93점 순으로 나타나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비해 축제육성에 보다 많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51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20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95점 순으로 나타나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이 두번 이하 방문한 사람들에 비해 축제육성에 보다 많은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축제육성의 동의여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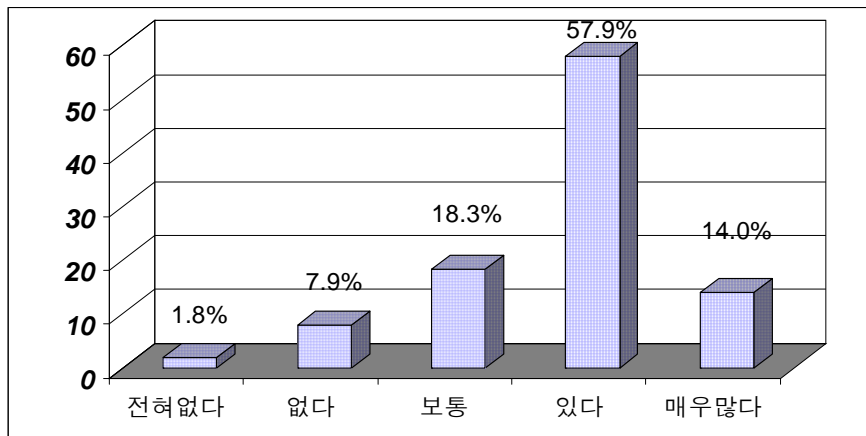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적극반대	반대	보통	동의	적극동의	계	평균	통계량
제주도	2(0.9)	11(4.9)	31(13.7)	99(43.8)	83(36.7)	226(100.0)	4.10	F=0.505 p=0.679
북제주군	3(1.9)	2(1.2)	23(14.3)	74(46.0)	59(36.6)	161(100.0)	4.14	
타시·도	1(1.0)	1(1.0)	18(17.1)	60(57.1)	25(23.8)	105(100.0)	4.02	
첫 번째 목적	1(0.4)	9(3.9)	25(10.9)	100(43.7)	94(41.0)	229(100.0)	4.20	F=4.492 p=0.012
부수적 목적	1(0.7)	3(2.1)	30(21.4)	58(41.4)	48(34.3)	140(100.0)	4.06	
우연한 방문	4(3.4)	2(1.7)	17(14.3)	71(59.7)	25(21.0)	119(100.0)	3.93	
처음	5(1.7)	13(4.3)	49(16.3)	157(52.2)	77(25.6)	301(100.0)	3.95	F=9.099 p=0.000
두번	0(0.0)	1(0.9)	15(13.9)	53(49.1)	39(36.1)	108(100.0)	4.20	
세번이상	1(1.2)	0(0.0)	7(8.6)	22(27.2)	51(63.0)	81(100.0)	4.51	

12) 축제 재방문 여부

- 들불축제의 재방문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 9명(1.8%), 없다 39명(7.9%), 보통 90명(18.3%), 있다 285명(57.9%), 매우 많다 69명(14.0%)로 나타났다.

<그림 3-11> 축제 재방문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 거주지역별, 방문목적별, 방문회수별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거주지별, 방문회수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거주지별로 보면 북제주군민 3.86점, 제주도민 3.76점, 타 시·도 관광객 3.51점 순으로 나타나 북제주군민들이 재방문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방문회수별로 보면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4.14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88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의 경우 3.58점 순으로 나타나 세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이 두번 이하 방문한 사람들에 비해 재방문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4> 축제 재방문여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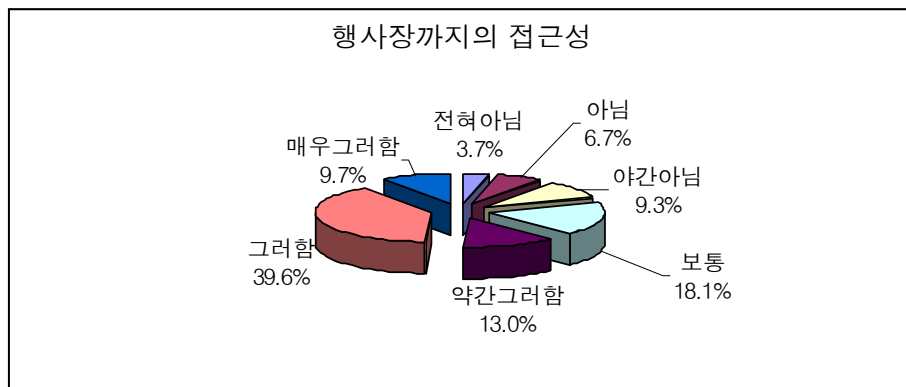
구분	전혀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매우많음	계	평균	통계량
제주도	4(1.8)	20(8.8)	35(15.4)	134(59.0)	34(15.0)	227(100.0)	3.76	F=5.271 p=0.001
북제주군	2(1.3)	7(4.4)	29(18.2)	94(59.1)	27(17.0)	159(100.0)	3.86	
타시·도	3(2.8)	12(11.3)	26(24.5)	57(53.8)	8(7.6)	106(100.0)	3.51	
첫번째목적	3(1.3)	19(8.3)	33(14.4)	133(58.1)	41(17.9)	229(100.0)	3.82	F=2.549 p=0.079
부수적목적	1(0.7)	13(9.2)	35(24.8)	70(49.6)	22(15.6)	141(100.0)	3.70	
우연한방문	5(4.2)	7(5.9)	22(18.6)	78(66.1)	6(5.1)	118(100.0)	3.61	
처음	7(2.3)	33(11.0)	61(20.3)	176(58.5)	24(8.0)	301(100.0)	3.58	F=9.248 p=0.000
두번	0(0.0)	3(2.8)	24(22.2)	63(58.3)	18(16.7)	108(100.0)	3.88	
세번이상	2(2.5)	2(2.5)	5(6.2)	45(55.6)	27(33.3)	81(100.0)	4.14	

다. 축제에 대한 만족도 분석

1) 행사장까지의 접근성

-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느냐에 대해 '전혀 아니다' 18명(3.7%), '아니다' 33명(6.7%), '약간 아니다' 46명(9.3%), '보통' 89명(18.1%), '약간 그렇다' 64명(13.0%), '그렇다' 195명(39.6%), '매우 그렇다' 48명(9.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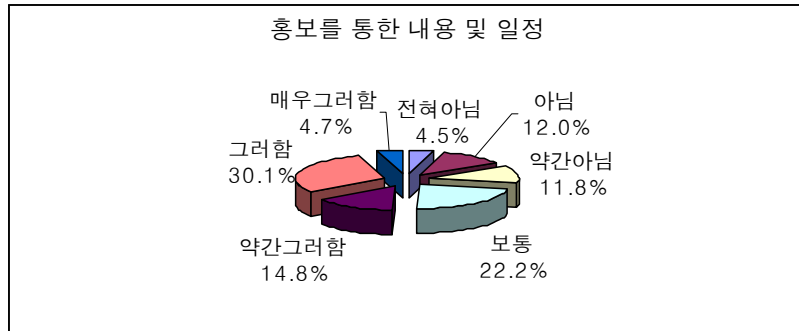
<그림 3-12> 행사장 접근성에 대한 빈도분석



2)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

-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 22명(4.5%), '아니다' 59명(12.0%), '약간 아니다' 58명(11.8%), '보통' 109명(22.2%), '약간 그렇다' 73명(14.8%), '그렇다' 148명(30.1%), '매우 그렇다' 23명(4.7%)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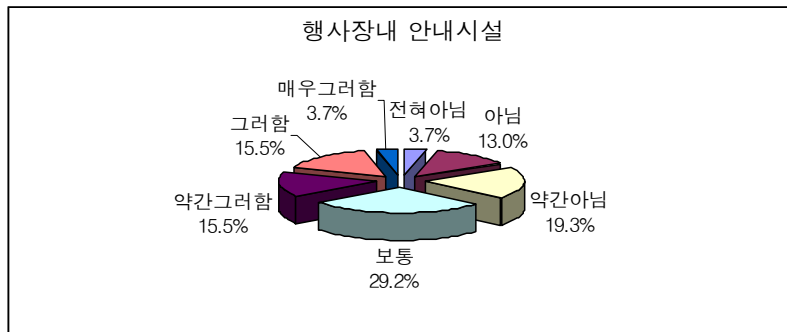
<그림 3-13> 사전홍보를 통한 축제 프로그램의 인지여부에 대한 빈도분석



3) 행사장내 안내시설의 우수성

- 행사장내 안내시설의 우수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18명(3.7%), '아니다' 63명 (13.0%), '약간 아니다' 93명(19.3%), '보통' 141명(29.2%), '약간 그렇다' 75명 (15.5%), '그렇다' 75명(15.5%), '매우 그렇다' 18명(3.7%)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행사장내 안내시설에 대한 빈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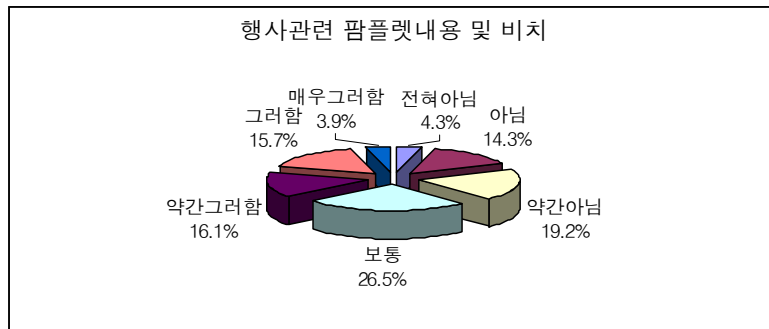
4) 행사관련 팸플렛 내용의 충실성과 잘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 행사관련 팸플렛 내용의 충실성과 잘 비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 21명(4.3%), '아니다' 70명(14.3%), '약간 아니다' 94명(19.2%), '보통' 130명

(26.5%), '약간 그렇다' 79명(16.1%), '그렇다' 77명(15.7%), '매우 그렇다' 19명(3.9%)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다'라는 의견 36.0%(3.7%+13.0%+19.3%), '보통' 29.2%, '그렇다'라는 의견 34.7%(15.5%+15.5%+3.7%)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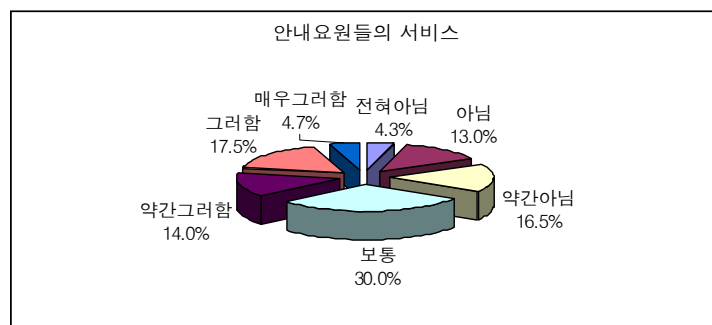
<그림 3-15> 행사관련 팸플릿에 대한 빈도분석



5)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

-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전혀 아니다' 21명(4.3%), '아니다' 63명(13.0%), '약간 아니다' 80명(16.5%), '보통' 146명(30.0%), '약간 그렇다' 68명(14.0%), '그렇다' 85명(17.5%), '매우 그렇다' 23명(4.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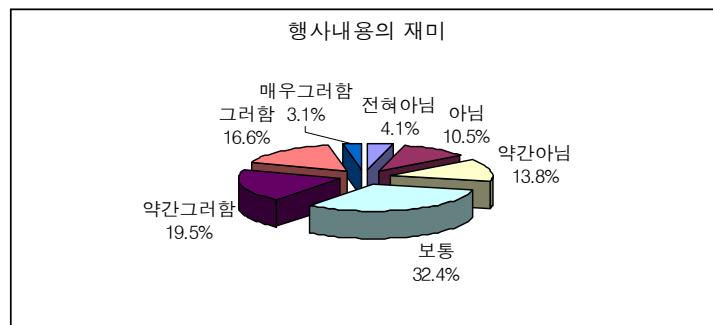
<그림 3-16>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빈도분석



6) 행사내용의 재미

- 행사내용의 재미에 대해 '전혀 아니다' 20명(4.1%), '아니다' 51명(10.5%), '약간 아니다' 67명(13.8%), '보통' 158명(32.4%), '약간 그렇다' 95명(19.5%), '그렇다' 81명(16.6%), '매우 그렇다' 15명(3.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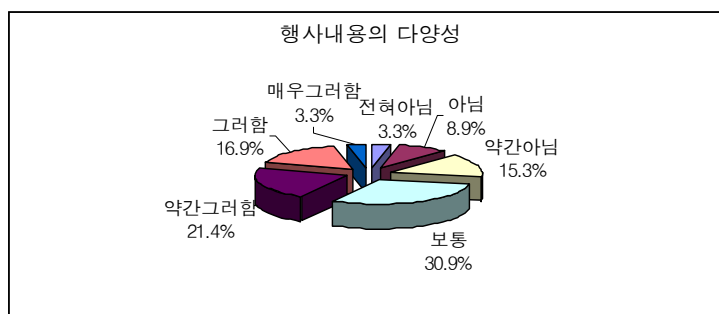
<그림 3-17> 행사내용의 재미에 대한 빈도분석



7) 행사내용의 다양성

-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16명(3.3%), '아니다' 43명(8.9%), '약간 아니다' 74명(15.3%), '보통' 150명(30.9%), '약간 그렇다' 104명(21.4%), '그렇다' 82명(16.9%), '매우 그렇다' 16명(3.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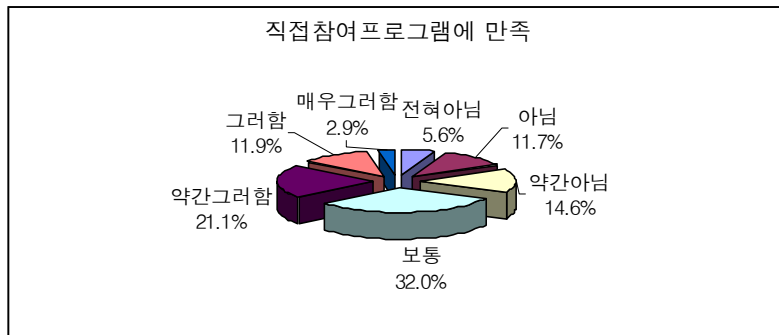
<그림 3-18>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대한 빈도분석



8)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전혀 아님' 27명(5.6%), '아님' 56명(11.7%), '약간 아님' 70명(14.6%), '보통' 153명(32.0%), '약간 그렇다' 101명(21.1%), '그렇다' 57명(11.9%), '매우 그렇다' 14명(2.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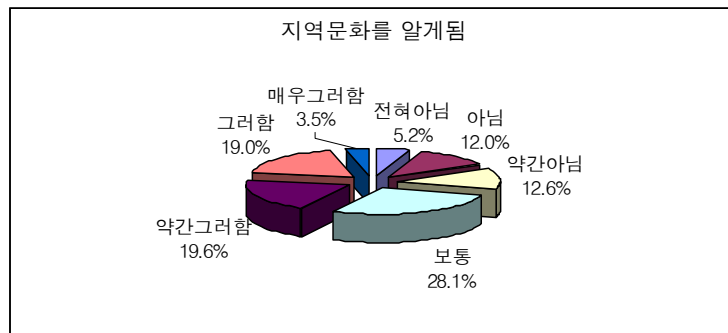
<그림 3-19> 직접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빈도분석



9)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지여부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 '전혀 아님' 25명(5.2%), '아니다' 58명(12.0%), '약간 아님' 61명(12.6%), '보통' 136명(28.1%), '약간 그렇다' 95명(19.6%), '그렇다' 92명(19.0%), '매우 그렇다' 17명(3.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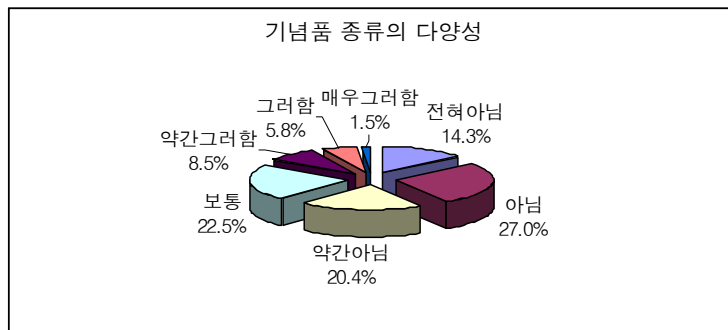
<그림 3-20>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에 대한 인지여부 빈도분석



10)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

-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69명(14.3%), '아니다' 130명(27.0%), '약간 아니다' 98명(20.4%), '보통' 108명(22.5%), '약간 그렇다' 41명(8.5%), '그렇다' 28명(5.8%), '매우 그렇다' 7명(1.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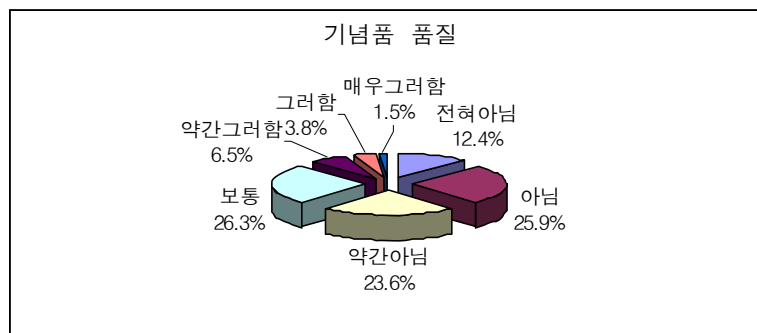
<그림 3-21> 기념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빈도분석



11) 기념품의 품질

- 기념품의 품질에 대해 '전혀 아니다' 59명(12.4%), '아니다' 123명(25.9%), '약간 아니다' 112명(23.6%), '보통' 125명(26.3%), '약간 그렇다' 31명(6.5%), '그렇다' 18명(3.8%), '매우 그렇다' 7명(1.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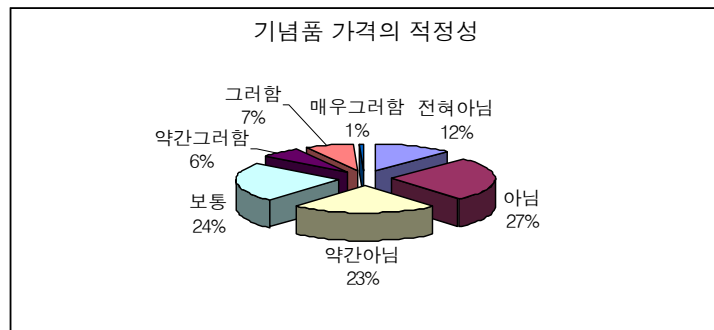
<그림 3-22> 기념품 품질에 대한 빈도분석



12)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

-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59명(12.3%), '아니다' 128명(26.7%), '약간 아니다' 109명(22.7%), '보통' 114명(23.8%), '약간 그렇다' 30명(6.3%), '그렇다' 36명(7.5%), '매우 그렇다' 4명(0.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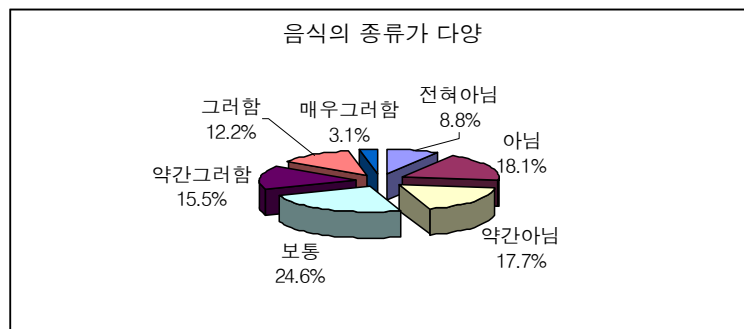
<그림 3-23> 기념품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빈도분석



13) 음식 종류의 다양성

- 음식종류의 다양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86명(17.7%), '아니다' 125명(25.7%), '약간 아니다' 92명(18.9%), '보통' 94명(19.3%), '약간 그렇다' 40명(8.2%), '그렇다' 36명(7.4%), '매우 그렇다' 13명(2.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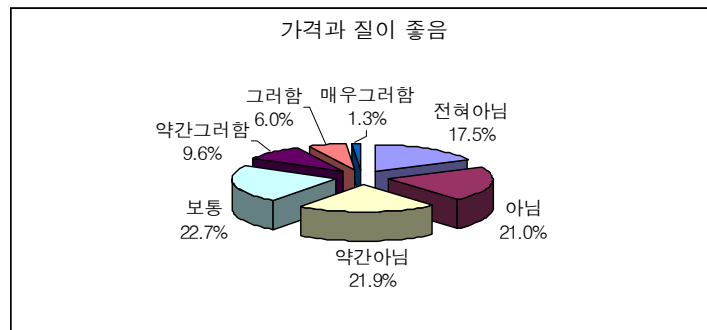
<그림 3-24>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빈도분석



14) 음식 가격과 질

- 음식가격과 질에 대해 '전혀 아니다' 84명(17.5%), '아니다' 101명(21.0%), '약간 아니다' 105명(21.9%), '보통' 109명(22.7%), '약간 그렇다' 46명(9.6%), '그렇다' 29명(6.0%), '매우 그렇다' 6명(1.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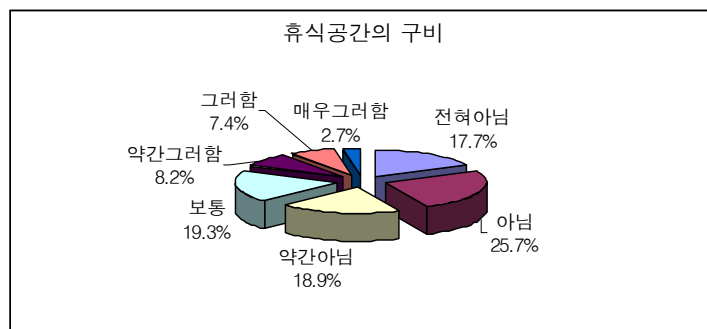
<그림 3-25>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한 빈도분석



15) 휴식공간(벤치, 휴게실 등)이 잘 갖추어짐

- 휴식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아니다' 86명(17.7%), '아니다' 125명(25.7%), '약간 아니다' 92명(18.9%), '보통' 94명(19.3%), '약간 그렇다' 40명(8.2%), '그렇다' 36명(7.4%), '매우 그렇다' 13명(2.7%)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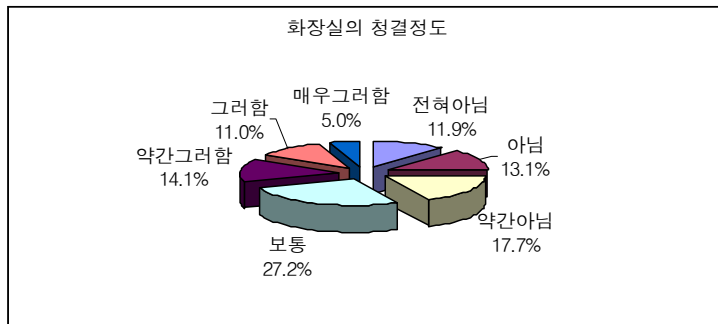
<그림 3-26> 휴식공간의 구비에 대한 빈도분석



16) 화장실의 청결성

-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 '전혀 아니다' 57명(11.9%), '아니다' 63명(13.1%), '약간 아니다' 85명(17.7%), '보통' 131명(27.2%), '약간 그렇다' 68명(14.1%), '그렇다' 53명(11.0%), '매우 그렇다' 24명(5.0%)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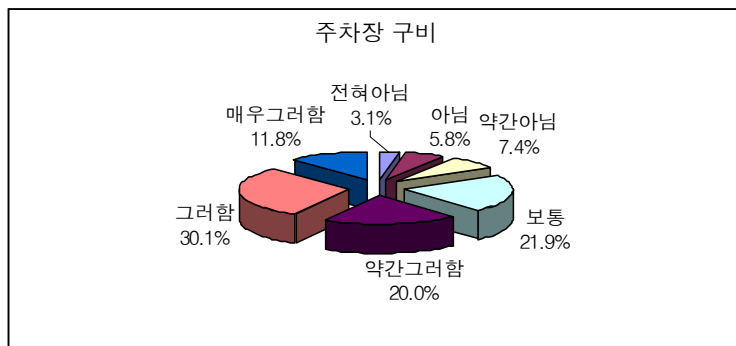
<그림 3-27>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한 빈도분석



17) 주차장

- 주차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 15명(3.1%), '아니다' 28명(5.8%), '약간 아니다' 36명(7.4%), '보통' 106명(21.9%), '약간 그렇다' 97명(20.0%), '그렇다' 146명(30.1%), '매우 그렇다' 57명(11.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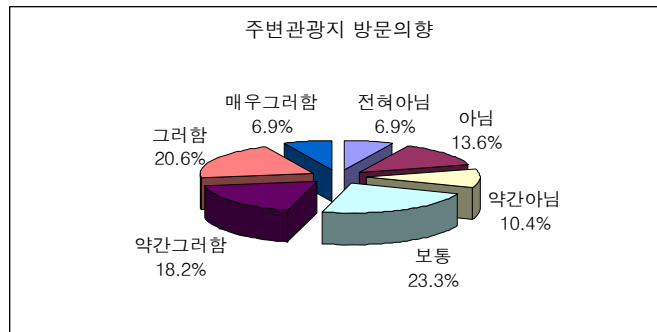
<그림 3-28> 주차장에 대한 빈도분석



18) 주변 관광지 방문 의향

- 주변 관광지 방문 의향에 대해 '전혀 아니다' 30명(6.9%), '아니다' 59명(13.6%), '약간 아니다' 45명(10.4%), '보통' 101명(23.3%), '약간 그렇다' 79명(18.2%), '그렇다' 89명(20.6%), '매우 그렇다' 30명(6.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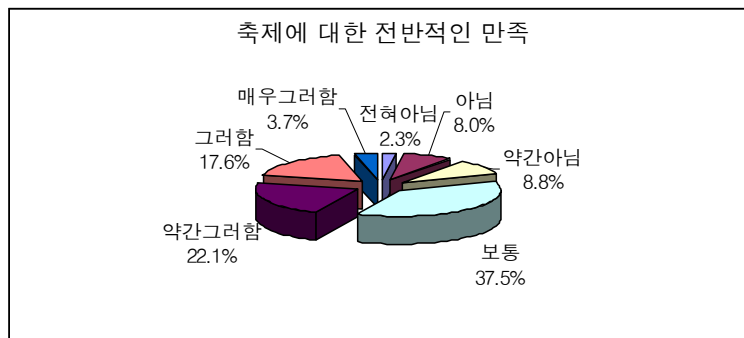
<그림 3-29> 주변 관광지 방문 의향에 대한 빈도분석



19) 전체 만족도

- 전체 만족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 11명(2.3%), '아니다' 39명(8.0%), '약간 아니다' 43명(8.8%), '보통' 183명(37.5%), '약간 그렇다' 108명(22.1%), '그렇다' 86명(17.6%), '매우 그렇다' 18명(3.7%)으로 나타났다.

<그림 3-30> 축제에 대한 전체 만족도 빈도분석



20) 거주지별 만족도

- 거주지별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축제 관련 기념품의 다양함', '기념품의 품질이 좋음', '기념품 가격의 적당함', '음식 종류의 다양성', '음식 가격과 질',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되어 있음', '주변 관광지 방문' 항목이었다.
- '축제 관련 기념품의 다양함'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3.48점, 제주도민 2.87점, 타 시·도 관광객 2.87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축제 관련 기념품의 다양성에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념품의 품질이 좋음'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3.52점, 타 시·도 관광객 2.85점, 제주도민 2.82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념품의 품질에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념품 가격의 적당함'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3.40점, 타 시·도 관광객 2.96점, 제주도민 2.95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념품 가격에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4.02점, 타 시·도 관광객 3.53점, 제주도민 3.52점 순으로 나타나 북제주군민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3.29점, 타 시·도 관광객 3.13점, 제주도민 2.91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 가격과 질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되어 있음'에 대해서는 북제주군민 3.33점, 타 시·도 관광객 3.02점, 제주도민 2.91점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휴식공간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 관광지 방문'에 대해서는 타 시·도 관광객 5.12점, 북제주군민 4.11점, 제주도민 3.81점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만족은 북제주군민 4.57점, 타 시·도 관광객 4.35점, 제주도민 4.23점 순으로 나타나 북제주군민이 타 집단과 비교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거주지별 만족도

(단위 : 명,%)

거주지 항목	제주도	북제 주군	타 시·도	전체 평균	F	P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	4.97	4.82	4.73	4.87	0.960	0.384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었음	4.43	4.50	4.15	4.39	1.681	0.187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었음	4.00	4.14	3.82	4.01	1.486	0.227
행사관련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었음	4.03	4.04	3.79	3.98	1.104	0.332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함	4.12	4.18	3.81	4.07	2.012	0.135
행사내용이 재미있었음	4.09	4.32	4.00	4.14	1.861	0.157
행사내용의 다양함	4.10	4.34	4.29	4.22	1.489	0.227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함	3.90	4.15	3.93	3.98	1.457	0.234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됨	4.00	4.35	4.18	4.16	2.453	0.087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함	2.87	3.48	2.87	3.07	9.273	0.000
기념품의 품질이 좋음	2.82	3.52	2.85	3.05	14.058	0.000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함	2.95	3.40	2.96	3.10	5.339	0.005
음식의 종류가 다양함	3.52	4.02	3.53	3.68	5.441	0.005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고, 질이 높음	2.91	3.29	3.13	3.08	3.013	0.050
휴식공간(벤치,휴게실)이 잘되어 있음	2.91	3.33	3.02	3.07	3.215	0.041
화장실이 청결함	3.67	3.90	3.52	3.71	1.832	0.161
주차장이 잘 되어 있음	4.92	4.76	4.92	4.87	0.578	0.562
주변 관광지 방문	3.81	4.11	5.12	4.21	21.631	0.000
전체 만족	4.23	4.57	4.35	4.36	3.158	0.043

21) 방문목적별 만족도

- 방문목적별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 '사전홍보의 인지도', '행사관련 팸플렛', '음식 종류의 다양성', '주변 관광지 방문' 항목이었다.

-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5.07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86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50점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타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사전홍보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58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49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97점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타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전홍보의 인지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행사관련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17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96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72점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타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사관련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88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52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47점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타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음식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음식 종류의 다양성은 전체 평균 3.68점으로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주변 관광지 방문’에 대해서는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58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10점,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 4.09점으로 나타났다.
- 전체만족은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 4.45점, 우연히 방문한 사람들 4.33점, 부수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 4.26점 순으로 나타나 첫번째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타 집단과 비교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방문목적별 만족도

(단위 : 명,%)

항목	참여목적	첫번째 목적	부수적 목적	우연한 방문	전체 평균	F	P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		5.07	4.86	4.50	4.87	5.267	0.005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었음		4.58	4.49	3.97	4.41	5.888	0.003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었음		4.04	3.99	4.01	4.02	0.065	0.937
행사관련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었음		4.17	3.96	3.72	4.00	3.578	0.029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함		4.24	3.92	3.96	4.08	2.441	0.088
행사내용이 재미있었음		4.24	4.15	3.98	4.15	1.265	0.283
행사내용의 다양함		4.32	4.17	4.11	4.23	1.027	0.359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함		4.01	4.08	3.85	3.99	0.821	0.441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됨		4.24	4.18	4.02	4.17	0.790	0.455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함		3.12	2.86	3.20	3.07	1.944	0.144
기념품의 품질이 좋음		3.17	2.87	3.08	3.06	2.023	0.133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함		3.21	3.14	2.90	3.11	1.819	0.163
음식의 종류가 다양함		3.88	3.47	3.52	3.68	3.551	0.029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고, 질이 높음		3.21	2.92	3.07	3.09	1.533	0.217
휴식공간(벤치,휴게실)이 잘되어 있음		3.20	2.87	3.09	3.08	1.823	0.163
화장실이 청결함		3.81	3.63	3.59	3.70	0.828	0.438
주차장이 잘 되어 있음		4.96	4.80	4.73	4.86	1.043	0.353
주변 관광지 방문		4.09	4.10	4.58	4.22	3.496	0.031
전체 만족		4.45	4.26	4.33	4.36	0.925	0.397

22) 참가회수별 만족도

- 참가회수별로 평균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사전홍보의 인지도', '체험 프로그램',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인지도', '기념품 가격', '음식의 가격과 질' 항목이었다.
- '사전홍보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91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59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18점으로 나타났다.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축제의 사전홍보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29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28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80점으로 나타났다.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42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39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00점으로 나타났다.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문화의 인지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념품 가격'에 대해서는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53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13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2.97점으로 나타났다.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기념품 가격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의 가격과 질'에 대해서는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42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3.14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2.97점으로 나타났다. 방문회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음식의 가격과 질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 만족은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50점, 두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44점, 첫번째 방문한 사람들인 경우 4.30점으로 나타나 세번째 이상 방문한 사람들이 타 집단과 비교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참가회수별 만족도

(단위 : 명,%)

항목	참가회수			전체 평균	F	P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상			
축제행사장까지의 접근성	4.79	4.86	5.18	4.87	1.942	0.145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었음	4.18	4.59	4.91	4.39	7.812	0.000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었음	3.89	4.12	4.30	4.01	2.776	0.063
행사관련 팸플렛이 잘 비치되어 있었음	3.92	4.08	4.08	3.98	0.631	0.533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함	4.02	4.06	4.27	4.07	0.855	0.426
행사내용이 재미있었음	4.05	4.36	4.24	4.15	2.058	0.129
행사내용의 다양함	4.18	4.31	4.26	4.22	0.420	0.657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함	3.80	4.28	4.29	3.98	6.435	0.002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를 알게됨	4.00	4.39	4.42	4.16	4.043	0.018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함	2.97	3.15	3.31	3.06	1.821	0.163
기념품의 품질이 좋음	3.01	3.06	3.22	3.05	0.738	0.478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함	2.97	3.13	3.53	3.10	4.862	0.008
음식의 종류가 다양함	3.59	3.73	3.97	3.68	1.909	0.149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고, 질이 높음	2.97	3.14	3.42	3.08	2.956	0.053
휴식공간(벤치,휴게실)이 잘되어 있음	2.99	3.08	3.39	3.08	1.899	0.151
화장실이 청결함	3.70	3.71	3.76	3.71	0.036	0.965
주차장이 잘 되어 있음	4.76	4.97	5.15	4.87	2.279	0.103
주변 관광지 방문	4.18	4.31	4.15	4.21	0.218	0.804
전체 만족	4.30	4.44	4.50	4.36	0.993	0.371

3.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선호도가 높다.

- 본 조사에 의하면 들불축제 관람객들은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참여 의사결정도 가족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TV와 지인에 의한 정보습득율이 높다.

- 들불축제의 정보원은 텔레비전(39.2%)과 지인(21.6%)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향후 들불축제 홈페이지 개설 등 인터넷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들불축제의 성격, 행사정보, 다음해의 프로그램 구성 등을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기념품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미흡하다.

- 들불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4.36점으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축제관련 기념품의 다양성', '기념품의 품질', '기념품의 가격', '음식의 가격과 질', '휴식공간(벤치, 휴게실)' 등의 부분은 다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라. 발전가능성과 재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들불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지속시켜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들불축제에 대한 재방문여부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재방문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객인 경우 제주도민(3.76점)과 북제주군민(3.86점)에 비해서 재방문의사가 3.51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관광객의 관람회수의 경우에도 첫번째 86.7%, 두번째 이상 13.3%로 나타나 관광객의 재방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IV. 관광객 수요증가 및 소비·투자지출액 추정

1. 관람객 수요 및 소비지출액 추정

가.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 수 산정

1) 전체 관람객 수

- 들불축제는 별도의 입장권 등이 필요없는 개방형 축제로서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산정방법을 활용하였고, 관람객 중에서 관광객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먼저 전체 관람객 수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전체 자동차 수를 산정하고, 자동차 유형별로 평균 탑승인원 수를 곱하는 방식과 축제장 입구에서 계수기를 가지고 전체 관람객 수를 집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 그 결과 다음의 <표 4-1>과 같이 전체 관람객 수는 자동차 대수에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는 산정방식으로는 약 19만 8천여명이, 계수기에 의한 집계로는 약 18만 1천여명이 들불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표 4-1> 들불축제 전체 관람객 수

구분	자동차 대수에 의한 산정	계수기에 의한 산정
전체 관람객	198,000명	181,943명
외국인 관광객	1,000명	907명

- 이상의 두 가지 산정방식 가운데 자동차 대수에 의한 관람객 수 산정은 차종별로 일정한 인원을 적용하는 데는 오차의 범위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181,943명을 최종 관람객 수로 산정하였다. 단 이 결과도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인해 다소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
 - 축제장 입구를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계한 것이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 중복계수의 가능성이 있다.
 - 축제와 관련한 사람 즉, 행사 진행요원이나 공연단, 상가운영자 등 순수 관람객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계수될 수 있다.

2) 관람객 수

- 전체 관람객 가운데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을 구별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 먼저 자동차 가운데 관광버스와 렌트카를 따로 산정하여 평균 탑승인원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관광객 비율 16.2%, 두번째는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전체 관람객 수 대비 관광객 비율 21.4%, 세번째는 앞서 두 가지 방법의 평균치인 18.8%의 비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 결과 관광객 수는 다음의 <표4-2>와 같이 산정되었다. 단 외국인관광객은 그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계수기에 의해 집계된 907명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표 4-2> 들불축제 참가 관광객 수

구분	내국인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전체 관광객 (전체 관람객 대비 관광객 비율)
시나리오 1 (자동차 대수에 의한 산정)	28,568명	907명	29,475명 (16.2%)
시나리오 2 (샘플조사에 의한 산정)	38,029명	907명	38,936 (21.4%)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과 2의 평균)	33,298명	907명	34,205명 (18.8%)

나.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가 추정

- 순수하게 들불축제로 인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는 부분을 추정해 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추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접근하였는데, 첫번째 개념은 축제기간 동안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과 축제가 없었을 경우의 증감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을 축제행사가 직접 유발한 관광객으로 추정해 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광객을 순(純)관광객 또는 실(實)관광객으로 명명하였다.
- 두번째는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별 성향을 파악하여 단순참가자들을 제외한 관광객을 추정해 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별 성향을 가진 관광객을 유효(有效)관광객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효관광객의 개념은 축제 참가자들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의 동기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들불축제 참여가 주목적인 경우는 100%, 부수적 목적인 경우는 관람시간과 제주체류기간을 감안하여 행사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관광객으로 추정해 내는 방식이다.

1) 순관광객 추정

- 순관광객 또는 실관광객의 추정은 축제 바로 1년전의 2월 마지막주 2001년 2월 23일(금)~2월 24일(토)간과 2002년 2월 22일(금)~2월 23일(토)¹⁾간의 내·외국인 내도 관광객 수 차이 중 축제가 개최되지 않은 가장 최근의 증감율을 초과하는 관광객 수를 들불축제로 인해 직접 유발된 관광객으로 추정하였다.
- 이러한 추정 근거는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는 국내·외 경기회복은 (+)요인으로, 국내항공요금의 인상은 (-)요인으로 작용하여 들불축제가 열림으로써 그 증가율은 확대되던가 또는 감소율을 축소시켰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1) 일요일 까지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일요일에 내도하여 들불축제에 참가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음.

- 순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 항공료인상 등으로 판단된다. 첫째,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축제가 열리기 이틀전인 2월 21일(목)까지의 전년대비 증감율(8.45%)을, 둘째, 항공료 인상이 관광객 내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 지를 검토하였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1년 3월 20일과 4월 2일부터 각각 12.1%와 11.8%씩 국내선 항공요금을 인상했는데, 이러한 요인은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관람객 유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서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²⁾ 결과에 따르면, 1% 항공요금의 인상은 내국인 관광수요를 0.5491%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평균요금 인상을 12.1%를 적용하면, 내국인관광객은 6.64%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3> 2002년 축제 전후 요일별 관광객 증감 추이

(단위 : 명, %)

요일	2001년		2002년		
	일자	관광객수	일자	관광객수	누계증감율
수	2.21	10,999	2.20	10,059	8.73
목	2.22	13,938	2.21	10,627	8.45
금	2.23	11,821	2.22	15,251	8.48
토	2.24	14,446	2.23	16,649	9.23
일	2.25	13,928	2.24	11,768	8.46
금~토합계		26,247		31,900	21.45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 따라서 순관광객 증가율 추정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먼저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가율인 8.45%와 항공료 인상효과인 -6.6%를 감안해 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 증가율인 1.85%를 산출한다. 이렇게 추정된 증가율을 들불축제 기간인

2) 제주발전연구원, “항공요금 인상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1. 3. 내부분석 자료. 추정방법은 1981년에서 2000년도까지의 내국인 관광객수와 항공운임자료를 이용하여 計量經濟的 기법을 적용한 결과임.

2001년 금~토요일까지의 관광객수 26,247명과 2002년 동요일간의 관광객수 31,900명의 증가율인 21.45%에서 차감한 19.6%가 바로 순관광객 증가율이 된다.

<표 4-4> 순관광객 증가율 추정(%)

들불축제 바로 이전의 증감율 (A)*	항공료 인상효과 (B)	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 증감율 C=(A+B)	실제증감율 (D)	순관광객 증가율 E=(D-C)
8.45	-6.6	1.85	21.45	19.6

주)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2월 21일(목)까지의 전년대비 증감율임.

- 2002 정월대보름 축제기간중의 순관광객수는 축제가 없을 경우의 관광객수³⁾인 26,753명과 실제로 들불축제기간의 실제 관광객수인 31,900명의 차이인 5,147명으로 추정되었다.

<표 4-5> 2002 정월대보름 축제기간중의 순관광객 수 추정

구분	들불축제기간 (2001년)	축제없을 경우 관광객수(A)	들불축제기간 (2002년)(B)	순관광객 (B-A)
관광객 (내국인+외국인)	26,267	26,753	31,900	5,147

2) 유효관광객 추정

- 축제나 월드컵경기와 같은 이벤트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 참가자의 몇퍼센트를 직접적인 효과로 보아야 하는지를 산정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대부분의 연구는 관람객 또는 입장객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그 효과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높고, 앞절에서 추정한 순관광객의 형태로 접근한다면 일반적으로 과소 추

3) 2001년의 들불축제기간의 관광객수인 26,267명에 들불축제가 없을 경우의 가상증가율인 1.85%를 감안하여 계산된 것임

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약점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유효관광객인데, 이는 축제 참가자의 목적과 제주도 방문동기를 연결시킴으로써 축제참가자들 중에 유효한 관광객을 추정해 이를 효과 분석에 이용하는 관점이다.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참가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부수적인 목적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제주도에 관광왔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 이러한 설문결과중 제주도 방문의 첫째 동기가 들불축제라고 응답한 사람은 100% 모두 유효관광객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어느 정도를 유효관광객으로 분리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관광객들이 평균적으로 들불축제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를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2박 3일(2.5일) 체류시간의 일정 비율을 고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6> 축제 참가 관광객의 목적별 구분

구 분	빈 도	비 율
첫째 목적이었다	34	32.1
부수적인 목적이었다	23	21.7
우연한 방문이었다	49	46.2
계	106	100.0

- 이와 관련해서 축제장에 참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축제장안에서 평균 3.03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일 전체 관람시간을 10시간으로 가정하면 1일의 30% 정도를 소비한다고 전제하고, 관광객의 평균체류 기간인 2.5일을 감안하여 0.3/2.5의 비율만큼을 감안해 유효관광객의 범주로 분류했다. 따라서 유효관광객 비율은 첫번째 목적이라고 답한 비율 32.1%와 부수적인 목적이라고 답한 21.7%에 0.12를 곱한 2.6%를 합산하면 전체 관람객의 34.7%로 추정된다.

<표 4-7> 관람객의 축제장 안에서의 소비시간

구 분	빈도	퍼센트
2시간미만	27	25.5
2~3시간	43	40.6
4~5시간	22	20.8
5~6시간	7	6.6
6시간이상	7	6.6
합계	106	100
가중평균	3.03시간	

- 먼저 축제참가 관광객수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나리오 I 은 주차대수를 이용하여 추정된 관광객의 비율 16.2%, 시나리오 II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관광객 비율인 21.4%, 그리고 시나리오 III은 위의 두 시나리오에서 적용된 비율의 평균치인 18.8%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축제참가 관광객수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에 유효관광객 비율을 적용, 3가지 유효관광객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표 4-8> 시나리오 I (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28,568명	34.7%	9,913명
외국인	907명	34.7%	315명
계	29,475명		10,228명

<표 4-9> 시나리오 II (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38,209명	34.7%	13,259명
외국인	907명	34.7%	315명
계	38,936명		13,573명

<표 4-10> 시나리오Ⅲ(유효관광객)

구 분	참가관광객 수	유효관광객 비율	유효관광객 수
내국인	33,298	34.7	11,554
외국인	907	34.7	315
계	34,205		11,869

2. 관광소비지출액 추정

가.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2000.2) 보고서에 따르면 왕복항공요금을 제외한 국내 여행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을 2박 3일 기준으로 여행형태별로 달리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11> 제주도 내국인 관광객의 여행형태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 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반단체	42,000	58,200	59,400	62,933	104,600	60,533	67,333	454,999
수학여행	39,400	15,200	20,000	16,400	4,200	6,000	4,000	105,200
신혼여행	169,929	93,000	98,429	93,629	17,571	14,214	34,000	520,772
가족여행	80,706	63,795	58,795	41,635	23,617	5,449	23,583	297,580
개별여행	48,490	48,923	45,090	24,173	9,327	50,356	27,385	253,744

- 일반여행객의 경우 1인당 소비액은 261,175원, 수학여행객의 경우는 137,544원, 신혼여행객은 1인당 평균 소비액이 580,204원으로 제시되었다. 가족여행객은 293,418원이고, 개별여행객은 1인당 소비액이 235,007원이었다.

- 들불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의 여행형태별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90~2000년 동안의 여행형태별 내국인 관광객 점유율인 일반단체 19.42%, 수학여행 8.28%, 신혼여행 11.97%, 가족여행을 포함한 개별 기타 60.33%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국내 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는데, 1999년 기준(2.5일 체제기준) 평균 290,959원(2001년 기준 305,507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여행형태별 내국인관광객 점유율(1990~2000년)

(단위 : 명, %)

구 분	일반단체	비율	수학여행	비율	신혼여행	비율	개별기타	비율	합 계	비율
1990	577,766	20.96	205,425	7.45	474,934	17.23	1,498,898	54.37	2,757,023	100
1991	652,007	22.26	229,798	7.84	535,540	18.28	1,511,897	51.61	2,929,242	100
1992	725,309	22.81	251,990	7.93	548,266	17.25	1,653,567	52.01	3,179,132	100
1993	615,884	19.33	212,790	6.68	463,828	14.56	1,894,047	59.44	3,186,549	100
1994	661,418	19.06	266,423	7.68	424,196	12.22	2,118,069	61.04	3,470,106	100
1995	771,873	20.56	352,056	9.38	381,658	10.16	2,249,373	59.90	3,754,960	100
1996	806,693	20.50	443,494	11.27	347,588	8.83	2,336,927	59.39	3,934,702	100
1997	807,313	19.32	507,248	12.14	355,944	8.52	2,508,284	60.02	4,178,789	100
1998	493,254	16.08	128,533	4.19	424,038	13.82	2,021,590	65.91	3,067,415	100
1999	584,116	17.08	211,259	6.18	316,506	9.25	2,307,990	67.49	3,419,871	100
2000	627,033	16.40	311,795	8.16	240,272	6.29	2,643,409	69.15	3,822,509	100
평균		19.42		8.28		11.97		60.33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4-13> 내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여행형태	소비액(원)	'90-'00평균 여행형태별 점유율(%)
일반단체	261,175	19.42
수학여행	137,544	8.28
신혼여행	580,204	11.97
개별기타	264,213	60.33
합계	1,243,136	100.0
국내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2.5일기준)	1999년 기준	290,959(원)
	2001년 기준	305,507(원)*

* 2001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1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5%을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나.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산출

-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는 일본인과 중국계, 영어권으로 나누어서 조사되었다.

<표 4-14> 제주도 외국인관광객의 세목별 지출액(1999년 기준)

(단위: 원/명)

구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쇼핑비	레저 스포츠비	오락 유흥비	기타 경비	1인당 지출액
일본계	353,061	348,824	120,901	729,729	384,035	861,894	282,282	3,080,726
중국계	174,939	105,869	80,006	248,841	9,014	76,199	82,587	777,455
영어권	191,006	80,070	84,710	42,170	18,766	23,580	17,040	457,342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2박 3일을 기준으로 일본인 관광객이 제주에서 소비한 비용은 1인당 2,165,561원, 중국계 관광객은 1인당 473,007원, 그리고 영어권 관광객의 경우는 440,68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국가 권역별 외국인관광객 점유율(1995 ~ 2000년)

(단위 : 명, %)

구 분	일본권	비율	중국권	비율	영어권	비율	합계	비율
1995	172,993	71.5	57,488	23.8	11,403	4.7	241,884	100
1996	150,139	71.7	49,572	23.7	9,542	4.6	209,253	100
1997	137,040	74.3	37,715	20.5	9,648	5.2	184,403	100
1998	136,272	60.9	73,793	33.0	13,636	6.1	223,701	100
1999	141,267	57.2	89,036	36.1	16,662	6.7	246,965	100
2000	162,095	56.2	98,017	34.0	28,471	9.9	288,583	100
합계	899,806	64.5	405,621	29.1	89,362	6.4	1,394,789	100

자료 : 제주도관광협회, 내부자료.

<표 4-16> 외국인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추정

구 분		소비액(원)	'95-'00평균 국가권역별점유율(%)
외국인 소비액	일본계(교포,일본)	2,165,561	64.5
	중국계(홍콩,대만,중국,싱가폴)	473,007	29.1
	영어권(미국,영국,독일,러시아등)	440,683	6.4
계			100.0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999년기준	1,562,636(원)
평균소비액(2.5일기준)		2001년기준	1,640,768(원)*

주) 2001년 기준 평균소비액임. 추정방법은 1999년 대비 2001년의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상승율 5%를 감안해 계산된 것임.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본 연구에서는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을 국가별로 추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995~2000년 동안의 국가 권역별 점유율인 일본권 64.5%, 중국권 29.1%,

영어권 6.4%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외국인 1인당 평균 소비액을 계산했다. 1999년 기준(2.5일 체재기준) 평균 1,562,636원(2001년기준 1,640,768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 비율을 구하기 위해 먼저, 1999년도 기준으로 관광객 세분시장별 총지출액을 계산하여 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고(<표 4-17>), 이러한 결과를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4)에서의 38개 산업부문의 지역산업연관모형에 대입하기 위해 <표 4-18>와 같이 관광객 항목별 지출 비율을 재추계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지출비율에 이미 앞에서 구한 내·외국인의 1인당 평균지출액을 곱하여 부문별 지출액을 계산했다.

<표 4-17> 제주지역산업연관모형 적용을 위한 관광객 세분시장별 지출액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계	관광객수	
내국인	일반단체	36,752.9	58,516.8	34,689.6	135,760.1	265,719.4	584,000
	수학여행	3,460.4	11,520.6	4,220.0	2,996.2	22,197.2	211,000
	신혼여행	29,680.4	83,348.5	31,202.0	20,853.8	165,084.7	317,000
	가족여행	69,905.2	242,617.2	98,716.8	88,397.7	499,636.8	1,679,000
	개별여행	15,204.8	61,272.8	28,361.6	54,765.8	159,605.0	629,000
	소계	155,003.0	457,275.9	197,190	302,773.6	1,112,243.1	3,420,000
외국인	일본계	103,086.6	99,153.2	17,079.3	215,885.8	435,204.9	141,267
	중국계	19,997.6	22,566.6	6,429.5	13,484.9	62,478.6	80,363
	영어권	374.9	2,410.1	753.2	528.0	4,066.2	8,891
	소계	123,459.1	124,129.9	24,262	229,898.7	501,749.7	230,521
총계	278,462.8	581,405.7	221,452.0	532,672.3	1,613,992.9	3,650,521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자료 : 송재호·고성보·윤동구,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제2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8.

4)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

<표 4-18> 관광객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지출비율(%)

구 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계
내국인	13.9	41.1	17.7	27.3	100.0
외국인	24.6	24.7	4.8	45.9	100.0
계	17.3	36.0	13.7	33.0	100.0

주) 도소매=쇼핑비, 음식 및 숙박=숙박비+식사비, 운수 및 보관=교통비,
사회 및 기타 서비스=레저스포츠+오락·유흥비+기타경비로 산출되었음.

<표 4-19> 관광객 1인당 산업연관표 부문별 지출액(2001년)

단위 : 원/인

구 분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계
내국인	42,465	125,563	54,075	83,403	305,507
외국인	403,629	405,270	78,757	753,113	1,640,768

다. 축제참가 도민의 평균 소비지출액 산출

- 축제에 참가자들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산출하기 위해 2002 정월대보름들불축제와 관련해 소비 경비를 설문조사한 결과, 관광객은 42,354원, 제주도민은 16,705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0> 축제 관련 소요경비 추정(2001년)

(단위:원)

구분	관광객	제주도민	전체
평균	42,354	16,705	23,263

- 그리고 경비지출 대상을 지역산업연관모형의 38개부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현지 교통비는 운수및보관부문으로, 식음료 및 숙박비는 음식점및숙박부문으로, 쇼핑비는 도소매업부문으로, 유흥비 및 기타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부문으로 각각 조정하였다.

<표 4-21> 1인당 경비지출 대상품목별 지출액

(단위 : 원/인)

항 목	관광객	제주도민	산업연관표상 구분*
현지교통비 (주차비, 연료비, 대중교통비 등)	9,308	3,474	운수 및 보관
식음료비 (식사, 음료수 등)	9,251	7,216	음식점 및 숙박
쇼핑비 (축제기념품, 특산물 등)	4,122	1,766	도소매업
유흥비 (노래방, 술값 등)	4,287	2,024	사회및기타서비스
숙박비 (축제 때문에 숙박한 경우만)	12,804	426	음식점 및 숙박
기타 비용	2,581	1,800	사회및기타서비스
계	42,354	16,705	

주)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pp.119-122 기준 적용 작성.

- 축제 관련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에 따르면 관광객은 음식점및숙박에 전체 42,354원의 52.1%를 지출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수및보관 22%, 사회및기타서비스 16.2%의 순이다. 제주도민도 역시 음식점및숙박에 전체 16,705원의 45.7%를 지출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및기타서비스 22.9%, 운수및보관 20.8%의 순이다.

<표 4-22> 축제 관련 경비지출의 산업연관표상 분류

구 분	관광객		제주도민	
	지출액(원)	비율(%)	지출액(원)	비율(%)
운수및보관	9,308	22.0	3,474	20.8
도소매	4,122	9.7	1,766	10.6
음식점및숙박	22,055	52.1	7,642	45.7
사회및기타서비스	6,868	16.2	3,824	22.9
계	42,354	100.0	16,705	100.0

주) 본 분석결과는 2002. 2월 기준이고, 산업연관효과분석의 기준년도는 2001년도로서 기간차가 1년미만이므로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분석에 이용하였음.

3. 축제 관련 예산투자의 산업별 분류

- 축제관련 예산지출액은 2002 정월대보름들불축제가 완전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지출계획서를 입수하고, 이 자료를 중심으로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부문별 분류작업을 하였다.
- 2002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와 관련된 총예산투자액은 3억 9640만원이며, 이 중에서 북제주군이 부담한 것은 3억 3,640만원으로 전체의 84.8%, 국비는 6천만원으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많이 지출된 부문은 행사지원비가 1억 9천여만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6.2천만원(15.8%), 재료비 5.5천만원(13.9%)의 순이다.

<표 4-23>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산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집행내역		
	자체사업 (군비)	보조사업 (국비)	합계
일반 운영비	12,900	-	12,900
행사 지원비	168,520	23,000	191,520
재료비	55,000	-	55,000
일시사역인부임	15,500	-	15,500
행사 실비보상금	13,880	26,000	39,880
기타보상금	14,100	-	14,100
민간경상보조	5,000	-	5,000
민간행사보조·위탁	51,500	11,000	62,500
계	336,400	60,000	396,400

자료 : 복제주군 기획감사실 내부자료.

- <표 4-23>을 중심으로 하여 <표 4-24>와 같은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부문별 분류를 보면, 사회및기타서비스 부문이 232.3백만원으로 전체 396.4백만원의 58.6%를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인쇄, 출판 및 복제가 33.5백만원(8.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3백만원(7.1%)의 순이다.

<표 4-24> 산업연관표상 투자액 분류

산업 분류	번호	산업연관표상 분류	투자액*
1차 산업	7	화훼 및 비식용작물	4.1
2 차 산 업	15	섬유가죽제품	3.6
	16	목재종이제품	12.4
	17	인쇄, 출판 및 복제	33.5

산업분류	번호	산업연관표상 분류	투자액*
2차 산업	18	석유 석탄 제품	2.17
	19	화학제품	20.5
	20	비금속광물제품	3.0
	22	금속제품	2.7
	27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19.0
3차 산업	29	건설	17.1
	31	음식점 및 숙박	0.1
	33	통신 및 방송	14.6
	3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8.3
	37	공공행정 및 국방	3.0
	38	사회 및 기타서비스	232.3
계			396.4

주) 산업연관효과분석은 2001년도 기준가격임.

자료 : 고성보 · 김태보 · 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pp.119-122기준 적용 작성.

V.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 파급경로 및 분석 방법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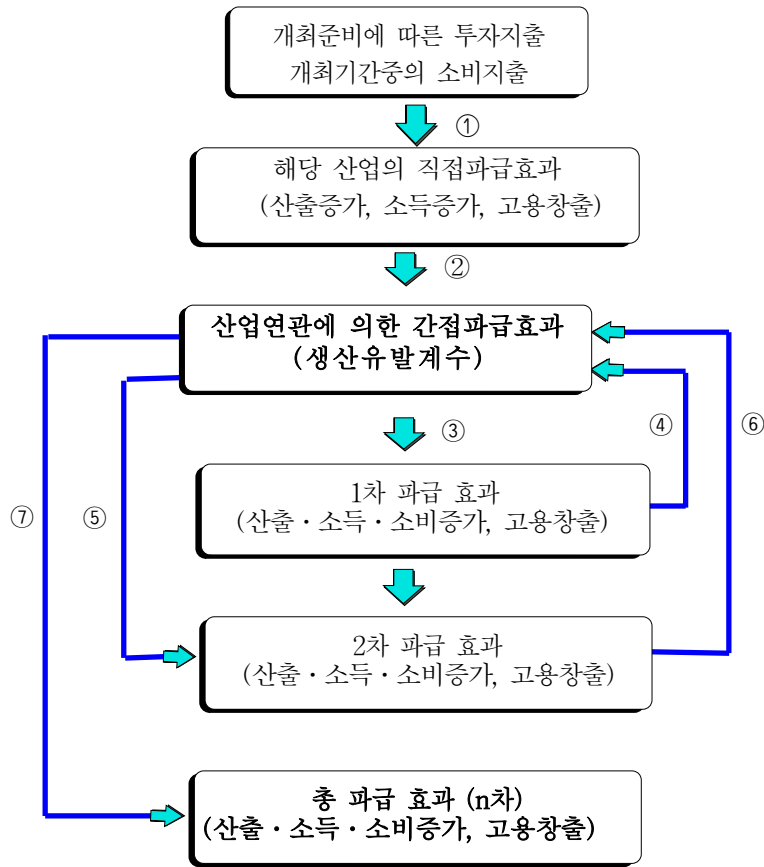
-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경로는 <그림 5-1>과 같다. 먼저 개최 준비과정에서 축제장 및 제반시설을 위한 투자지출과 개최기간 중 소비지출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러한 투자 및 소비지출은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과정에서 참여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즉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 외에 노동, 자본 등 기초 투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해외 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수입을 유발시킨다⁶⁾.
- 한편, 해당산업의 생산 증가는 이 산업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증가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 및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 소비 증가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파급된다. 즉 각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 증가는 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 소비 증가가 다시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연쇄과정으로 다른 산업에 n차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파급 효과의 분석에는 지역 및 국민경제의 흐름을 산업부문간의 투입 및 산출관계로 통해서 동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산업연관모형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제주지역 산업연관모형은 한국은행에서 1999년에 발표한 「1995년 전국 산업연관표」를 지역가중치에 의한 방법과 공급-수요『풀』법(Supply-Demand Pool Approach)을 병용하여 작성한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개발』⁷⁾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다.

5) 본절은 이춘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 타당성 분석』,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0.5.의 내용을 수정·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6) 한국개발연구원, 「2002년 월드컵축구 한국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 1995. pp. 50~54.

7)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그림 5-1>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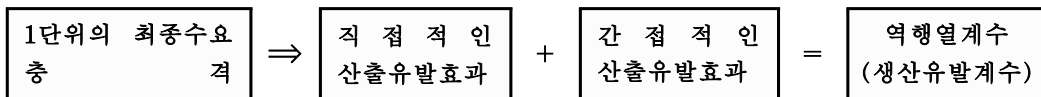


○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일연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역행렬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AX + F - M &= X \\
 X - AX &= (F - M) \\
 (I - A)X &= (F - M) \\
 X &= (I - A)^{-1}(F - M)
 \end{aligned}$$

○ 위에서 X는 지역산업 부문별 산출액 열 「벡터」, I는 단위행렬, A는 지역투입계수행렬, F는 지역최종수요 열 「벡터」, M는 지역수입 열 「벡터」, 위의 (I-A)를 레

온티에프 행렬이라 한다. $(I-A)^{-1}$ 를 생산유발계수행렬 또는 다부문 승수라고 하는데, 역행렬 $(I-A)^{-1}$ 를 $(I-A)^{-1}=B=(b_{ij})_{n \times n}$ 으로 표기 하면 b_{ij} 는 j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i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간접 생산단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1단위 최종수요 충격(impact)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낸다.



- 2002년 축제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최에 따른 투자지출이 최종수요의 한 항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업 서비스업 등의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즉 수식은 $Q=(I-A)^{-1} \cdot F$ 가 되며, 여기서 Q는 신규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F는 투자금액(최종수요)이다⁸⁾.
- 지역경제에 미치는 노동유발효과는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노동계수(L)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고용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노동계수는 제주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만을 의미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고용유발계수행렬에서 축제 개최에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⁹⁾.
- 지역경제에 미치는 소득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소득계수(Y)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소득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한다. 소득계수는 제주지역 산업별 피용자들의 소득을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이다. 소득유발계수행렬에서 축제 개최에

8)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pp.333~337.

9) 이 경우 생산유발계수행렬에 열벡터(해당 산업은 투자금액(impact)을 넣고, 기타부문은 제로로 넣음)를 곱해서 행으로 합계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따른 투자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한 후 해당부문의 최종수요 투자금액을 곱하면 자기 산업을 포함한 여타산업에 미치는 소득유발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 이상의 산업분류에서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따른 투자 및 소비지출의 산업별 배분은 제4장에서 언급한 대로 시설투자인 경우는 화훼 및 비식용작물,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출판 및 복제, 석유 석탄 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가구 및 기타제조업제품, 건설,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사회 및 기타서비스 등 15개분야, 소비지출부문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의 4개부문으로 구분하였다.

2.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2002년 들불축제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크게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대, 관광수입 증대, 그리고 이러한 관광수입 증대와 축제와 관련된 시설투자가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증대 효과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가. 순관광객 및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 들불축제로 인해 증대된 관광객 추정은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유발된 관광객을 의미하는 순관광객¹⁰⁾과 축제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방문목적을 감안한 유효관광객(시나리오 I ~ III)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 먼저 들불축제가 순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 즉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된 관광객 수는 5,147명으로 추정되었다.¹¹⁾
- 들불축제가 유효관광객 증대에 미친 효과는 내국인인 경우는 9,913명(시나리오 I)~13,259명(시나리오II)으로 평균 11,554명이고, 외국인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315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순관광객으로 접근한 경우는 그 효과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함.

11) 구체적인 추정과정은 제4장 관람객 수 수요 및 소비지출액추정 부분에 언급되어 있음.

- 따라서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전체 관광객은 10,228명(시나리오 I)~13,573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11,869명이다. 즉 유효관광객은 순관광객의 증대에 비해 약1.9배 ~ 2.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2002년 들불축제가 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전체 관광객 증가 추정치
유효관광객	시나리오 I	9,913명	315명	10,228명
	시나리오 II	13,259명	315명	13,573명
	시나리오 III	11,554명	315명	11,869명
순관광객		-	-	5,147명

나. 관광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

-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30.2억원(시나리오 I)~40.5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35.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5.1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35.4억원(시나리오 I)~45.6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40.4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9배에서 많게는 11.5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액 23.8억(시나리오 II)~25.4억원(시나리오 I)을 더하면 그 전체 지출증대규모는 60.9억원(시나리오 I)~69.5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65.1억원이다.
- 이것은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30만 5천원과 164만이 각각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5-2>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 I)

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 및 기타서비스	합계
내국인	421.0	1,244.7	536.1	826.8	3,028.5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548.0	1,372.3	560.9	1,063.8	3,544.9
제주도민	269.3	1,165.2	529.7	583.0	2,547.1
합계	817.3	2,537.4	1,090.5	1,646.8	6,092.0

<표 5-3>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 II)

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합계
내국인	563.0	1,664.8	717.0	1,105.8	4,050.6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690	1,792.4	741.8	1,342.8	4,567.0
제주도민	252.6	1,092.9	496.8	546.9	2,389.1
합계	942.6	2,885.2	1,238.5	1,889.7	6,956.0

<표 5-4> 축제가 관광 및 도민지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시나리오 III)

단위 : 백만원

	도소매	음식및숙박	운수및보관	사회및기타 서비스	합계
내국인	490.7	1,450.8	624.8	963.7	3,529.9
외국인	127.0	127.6	24.8	237.0	516.4
관광객소계	617.7	1,578.4	649.6	1,200.7	4,046.3
제주도민	260.9	1,129.0	513.2	565.0	2,468.1
합계	878.6	2,707.4	1,162.8	1,765.6	6,514.4

다. 지역생산, 고용 및 소득증대에 미치는 효과

- 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는 관광수입의 증대와 시설투자, 그리고 제주도민의 관광 비용으로 지출된 소비증대는 산업간의 연관효과에 따라 지출 이상의 산출 및 고용증대,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 제4장에서 이미 38개 산업부문을으로 분류된 각 투자 및 소비지출 항목인, 1차산업 관련 화훼 및 비식용작물 1개 부문, 2차산업 관련 섬유가죽제품, 인쇄·출판 및 복제, 화학제품,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등 6개 분야, 3차산업은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음식점 및 숙박, 통신 및 방송,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등 7개 분야 총 14개 분야의 최종수요가 증대되면 곧 지역의 생산(산출)증대, 고용증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1) 지역생산(산출)에 미치는 효과¹²⁾

- 산출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42.2억원(시나리오 I)~56.4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49.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7.2억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49.5억원(시나리오 I)~63.7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56.5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12.5배에서 많게는 16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의 산출효과인 33억원~3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5.4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90.4억원(시나리오 I)~102.4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96.3억원이다.
-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2만 6천원과 230만 8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관광객 1명당 2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40만원의 지역산출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12)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부록>에 게재하였고, 여기에는 핵심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나타냈음.

<표 5-5> 2002년 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산출효과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합계
시나리오1	4,224.3	727.0	4,951.3	3,547.0	546.1	9,044.3
시나리오2	5,649.9	727.0	6,376.9	3,326.9	546.1	10,249.8
시나리오3	4,923.7	727.0	5,650.7	3,436.9	546.1	9,633.7
1인당	0.426	2.308		0.023	1.4	

2)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 고용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224명(시나리오 I)~300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261명이며, 외국인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34명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259명(시나리오 I)~335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296명으로 추정되었다.
-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고용효과인 181명~193명,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21명을 더하면 전체적인 고용증대 규모는 474명(시나리오 I)~538명(시나리오 II)으로 평균 505명이다.

<표 5-6> 2002년 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명

고용효과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시나리오1	224.4	34.9	259.3	193.5	21.8	474.6
시나리오2	300.1	34.9	335.0	181.5	21.8	538.3
시나리오3	261.6	34.9	296.5	187.5	21.8	505.8
1인당	0.023	0.111		0.001	0.1	0.003

-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3명과 11.1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1명, 시설투자는 1천만원당 1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3)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 지역증대 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30억원(시나리오 I)~40.2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35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4.9억원으로 나타나,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35억원(시나리오 I)~45.1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8배에서 많게는 11.4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24억원~25.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3.2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63.9억원(시나리오 I)~72.4억원(시나리오 II)으로 평균 68억원이다.
-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30만 4천원과 157만 2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1만 7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80만원의 지역소득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표 5-7> 2002년 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소득효과	내국인	외국인	관광소계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시나리오1	3,008.5	495.2	3,503.7	2,559.7	326.1	6,389.5
시나리오2	4,023.8	495.2	4,519.0	2,400.9	326.1	7,246.0
시나리오3	3,506.6	495.2	4,001.8	2,480.3	326.1	6,808.2
1인당	0.304	1.572		0.017	0.8	0.043

VI. 종합 요약 및 정책 제언

1. 종합 요약

가. 관람객 행태 분석

- 방문 목적을 분석한 결과 들불축제가 첫 번째 목적이었다는 응답자가 47% 이상으로 나타나 순수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들불축제 기간중 다른 이벤트가 없다는 점도 반영되었겠지만 들불축제가 점차 관람객을 유인하는 흡입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들불축제 정보원에 대해서는 TV(39.2%)와 지인(21.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인터넷(3.9%)과 여행사(3.3%)의 활용비중이 낮은 것은 홍보 전략을 다양하게 전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축제 참가 결정여부는 가족(42.3%), 친구 혹은 동료(22.3%)로 나타났고, 동행인에 대한 응답에서도 가족(5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들불축제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축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 관람 여부 결정시기는 당일 결정(30%)이 가장 높았으나, 3-4일 이전(27.6%), 일주일 이전(23.9%), 1개월 이전(10.5%) 결정한 비율도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사전홍보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 관람회수는 전체적으로도 처음(62.1%)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관광객의 경우에는 86.7%가 처음이라는 응답을 보여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
- 들불축제의 지속적인 육성여부에 대해서는 동의(47.4%), 적극 동의(33.9%)로 나타나 응답자의 약 82%가 향후에도 들불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 들불축제 재방문 여부에 대해서 재방문하겠다(57.9%), 반드시 재방문하겠다(14%)로 재방문 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약 72%로 나타나 축제의 성공여부는 참여객의 비중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향후에도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나. 관람객 만족도 분석

- 축제장까지의 접근성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쉽고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응답을 보여 접근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부 산업도로의 확장공사로 교통로가 개선된 것도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 축제의 사전홍보에 대해서 응답자의 약 50%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응답을 보였고, 약 28%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축제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한 정전달 면에서도 비교적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 행사장내 안내시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가, 행사 관련 팸플렛의 내용과 비치 정도에 대해서도 약 38%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행사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약 34%로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나 행사 안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 행사내용의 재미 정도에 대해서는 약 40%가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행사내용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약 42%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 행사내용면에서는 비교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65%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약 42%의 응답자가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보여 축제가 향토적인 특색을 비교적 잘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념품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품질, 가격의 적정성 측면 모두에서 약 62%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들불축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의 개발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축제장내의 음식에 대해서도 다양성 측면은 약 62%, 가격과 질 측면은 약 60%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기타 의견수렴 항목에서도 음식점의 난립 등의 지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 벤치와 휴게실과 같은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2%가, 화장실의 청결성에 대해서는 약 43%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관람객들의 편의시설 구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들불축제 전체적인 만족도 정도는 응답자의 약 43%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약 19%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안내서비스나 기념품, 음식, 휴식공간과 같은 부문에서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관광객 수요 및 소비 분석

- 들불축제 기간중의 전체 관람객 수는 개방형 축제라 집계가 어렵고,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만 2가지 이상의 산정방식을 이용한 결과 약 18만 1천여명으로 추정된다.
- 전체 관람객 중 관광객 수는 먼저 자동차 대수 산정 방식에 의하면 약 2만 9천여명으로, 샘플조사 비율에 의한 결과는 약 3만 8천여명으로 나타나 이의 평균치를 이용한 결과치는 약 3만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 한편, 들불축제가 직접적으로 유인했다고 할 수 있는 순관광객은 5,147명으로 추정되고, 직접적으로 유인된 관광객과 부수적 목적으로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을 합한 유효관광객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228명 최대 13,573명으로 추정된다.
- 들불축제 참가를 위해 관람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관광객인 경우에는 42,354원, 도민의 경우에는 16,705원으로 추정되어 전체적으로는 1인당 약 2만 3천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내국인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약 30~40억원으로 평균 35.2억원이며, 외국인인 경우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5.1억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45억원으로 평균 40.4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9배에서 많게는 11.5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의 지출액

인 24.6억원을 더하면 그 전체 지출증대규모는 약 61~70억원으로 평균 65.1억원이다. 이것은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더 유인할 수 있다면,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내·외국인 각각 30만 5천원과 164만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지역생산 산출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평균 56.5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12.5배에서 많게는 16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산출효과인 33억원~3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5.4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약 90~102억원으로 평균 96.3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산출에는 42만 6천원과 230만 8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2만 3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140만원의 지역산출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 지역고용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259~335명으로 평균 296명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고용효과인 181명~193명, 시설투자에 따른 고용효과 21명을 더하면 전체적인 고용증대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474~538명으로 평균 505명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00명과 외국인 100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2.3명과 11.1명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000명당 1명, 시설투자는 1천만원당 1명의 지역고용이 증대되는 셈이 된다.
- 지역소득증대 효과는 내·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45억원으로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축제 전체 예산 3.96억원의 적게는 8.8배에서 많게는 11.4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여기에 제주도민 지출의 소득효과인 24억원~25.5억원, 시설투자에 따른 산출효과 3.2억원을 더하면 전체적인 산출증대 규모는 약 64~72억원으로 평균 68억원이다. 이것은 축제 개최에 따라 내국인 1명과 외국인 1명을 추가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면, 지역고용에는 30만 4천원과 157만 2천원의 증대 효과를 각각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민은 입장객 1명당 1만 7천원, 시설투자는 1백만원당 80만원의 지역소득이 각각 증대되는 셈이 된다.

마. 종합 평가

- 이상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의 규모, 관람객 행태 및 만족도 분석, 관광객 수요 및 소비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 결과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라고 평가될 만 하다.
- 물론 들불축제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들불축제와 비교하기가 어렵고, 타 시·도 축제의 경우는 축제가 행해지는 지역의 주민외에는 모두 관광객으로 분류하는 등 제주도와는 다른 실정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향후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공이라 할 수 있다.
- 첫째, 축제참여가 첫번째 목적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7% 이상으로 순수 참여율이 높았고, 응답자의 약 72%가 재방문 의사를 보였다.
- 둘째, 향후에도 들불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응답자의 약 82%가 동의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대다수의 관람객이 들불축제의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기념품, 음식, 휴식공간 등에서는 다소 불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접근성,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재미, 참여프로그램 등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인 항목들이 많았고, 특히 응답자의 약 8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넷째, 관광수입 증대효과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 35~45억(평균 40여억원)으로 축제 전체예산의 최소 8.9배에서 최대 11.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섬문화 축제가 약 2배를 보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 다섯째, 지역생산 산출증대효과는 평균 56여억원으로 축제 전체예산의 최소 12.5배에서 최대 16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섬문화 축제가 4.4배를 보인 것에 비하면 역시 높은 수치이다.
- 여섯째, 지역소득 증대효과는 평균 40여억원으로 축제 전체예산의 최소 8.8배에서 최대 11.4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섬문화 축제가 3.1배를 보인 것에 비하면 역시 높은 수치이다.

2. 정책제언

- 앞서 종합평가에서 보듯이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관람객의 참여 수준, 만족도 및 지역경제 효과분석, 언론 및 여론 내용, 참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군단위의 지역축제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이상의 발전을 통하여 세계적인 축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교통대책의 수립 및 주차장 개선안 마련

-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관람객들이 교통대란을 겪음으로서 축제 전반의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서 축제 2일째 오후 3시 이후에는 축제장으로의 승용차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태우기 장면을 보기 위하여 2일째 오후 3시 이후에 한꺼번에 관람객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관람객 집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승용차의 진입은 통제하고 관람객을 위한 셔틀버스를 임시로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애월읍 봉성 방면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개설이 요구된다.
- 또한 오름태우기가 끝난 후에는 주차장이 어떠한 조명시설도 없고, 임시주차구획선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유로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소실되지 않는 자재로 하여 설치한다.

나. 편의시설의 확충 및 공원화 추진

- 축제장인 새별오름 일대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과 불과 2일간의 행사라는 점에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국제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향후 대중적인 축제로 발전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

안하면 벤치, 휴게실, 수세식 화장실 등과 같은 편의시설 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연차별로 새별오름 일대를 구입하여 공유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공유지로 조성이 가능하다면 새별오름 일대를 ‘들불축제공원’으로 조성하여 축제기간 이외에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오름을 경험하는 공원으로 활용한다면 축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축제 관련 기념품의 개발

- ‘부리부리’라는 명칭의 들불축제 마스코트와 캐릭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상품은 캐릭터가 새겨진 타월이 전부였다. 그런 이유로 축제장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관람객 만족도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들불축제의 가장 미흡한 부분의 하나가 기념품 부분이므로 축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홍보방안의 하나로서도 다양하고 품질 좋은 관련 기념품을 개발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념품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초기 개발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념품을 개발하되 들불축제가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다는 점에서 자녀층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하여 어린이용 필기도구, 가방, 모자 등을 먼저 시험개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라. 홍보 및 안내시스템의 개선

- 축제행사장 입구에는 안내소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행사팸플릿을 나누어 주는 기능 이외에는 이렇다할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홍보안내요원들의 자질과 역할체계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마침 안내소 바로 앞에서는 모 기업체의 홍보도우미들이 눈에 띄는 의상과 춤동작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유도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 이러한 결과는 바로 관람객 만족도 분석에서도 나타나 들불축제 홍보안내와 관련하여 팜플렛의 비치여부, 안내요원들의 친절성, 안내시설의 우수성 등 전반적인 안내시스템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특색있고 공격적인 홍보안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체 공무원들로 어려움이 있다면 도우미를 고용해서라도 사기업 못지 않은 흥미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동시에 친절한 안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어깨띠 하나만 두르고 손에 팜플렛을 들고 관람객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의 서비스이다.
- 이 밖에도 축제를 관람하는 외국인의 증가에 대비하여 안내소 표지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한다.
- 홍보면에서는 분석결과 대부분의 관람객이 텔레비전을 통해 축제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외관광객의 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또한 대도시 여행사와의 연계 및 인터넷 홍보를 강화한다.

마.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이번 들불축제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가 가족단위 관람객이 큰 주류를 이루어 축제참가의 결정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동행인 역시 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관광행태 흐름과 최근 제주관광의 추세를 보더라도 향후에도 점점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이용시설의 설치 등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 예를 들어 최소 몇명 이상의 가족단위 관람객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를 대동한 가족을 위해서는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여 임시로 어린이를 맡아주는 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어린이 놀이방에 유아를 대동한 가족을 위해서는 분유용 온수를 마련하거나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사소한 서비스에도 만전을 다할 때 관람객의 참가와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다.

바. 연계관광계기 마련 및 음식차별화

- 도외관광객에게 관련 연계관광코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주변관광지로의 방문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홍보 리플렛에 축제소개 만이 아니라 주변관광지 소개와 연계 대중교통편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 행사장 입구에 상인들이 판매하는 음식점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메뉴들이므로 지역별 먹거리나 주제별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식당 배치를 조정하여 주 진입로 양측에 향토음식점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제주고유의 향토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사. 축제프로그램의 집중화

- 짧은 일정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다 보니 행사장이 분산되고 안내체계가 다소 미흡하여 관람객에게 산만한 느낌을 주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특설무대 일대로 집중하여 진행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구성되었고, 관람객들도 이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나 사전 및 현장홍보가 다소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관람객 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이상의 필수적인 개선점에 대한 제언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축제의 기간과 개최 요일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들불축제의 최대 행사인 오름태우기가 일요일 저녁에 벌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들불축제가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이지만 향후 전국적 축제 나아가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름태우기 행사를 토요일에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단, 금요일(평일)에 축제를 개막하는 경우 평일이라는 이유로 축제참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성보·김태보·이돈재, 『제주지역의 산업연관모형 개발』, 제주발전연구원, 1999.12.
- 고성보·정승훈, “2001년도 제주세계섬문화축제 종합평가(경제분석)”,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
- 김규호, “문화적 자원이 지역관광에 미치는 효과분석”, 경주문화엑스포기념 제1회 학술대회, 1998.
- 김규호·김사현, “지역산업연관모형에 의한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22권 1권, 1998.
- 동국대 관광산업연구소,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1998.11. 세미나 자료.
- 동국대, 경주대, 위덕대, 『2000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성공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2000. 세미나자료.
- 송재호·고성보·윤동구,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제2권, 제주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8.
- 이강욱, 『관광개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1997.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11.
- 이춘근,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대구유치 타당성 분석』, 대구경북개발연구원, 2000.5
- 이충기, “2002 월드컵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산업연관(Input-Output)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22권 3호, 한국관광학회, 1999.
- 제주도, 『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0.
- 정강환, 『이벤트관광전략』, 일신사, 1999.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2000.2.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진흥기본계획』, 2000.10.
- (사)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2001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결과보고서』, 2001.7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2000.
- 통계청 internet site <http://www.nso.go.kr>
-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에 관한 투입-산출분석』, 1993.
- 한국관광공사 internet site <http://www.knto.or.kr>
-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부 록>

- 1. 설문지**
- 2. 부 표**

--	--	--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대해 만족·불만족 요인 등 관람객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반 문제점과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점과 보다 발전된 축제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각 질문항목에 대하여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의견은 앞으로 들불축제를 보다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2002. 2.

조사기관: (재)제주발전연구원

연구책임 신 동 일

공동연구 고 성 보

정 승 훈

조사의뢰: 복제주군

♠ 질문항목에 해당되는 번호에 '○' 또는 '√'표를 해주시거나 물음에 따라 빈칸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1.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 ① 제주도(북제주군 제외) ② 북제주군 ③ 타 시도 ④ 기타()

2. 들불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 여행에서 얼마나 주된 목적입니까?

- ① 첫번째 목적 ② 부수적 목적 ③ 우연한 방문

3. 귀하께서 이번 들불축제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 ① 텔레비전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여행사 ⑤ 아는 사람
⑥ 현수막 ⑦ 인터넷 ⑧ 기타()

4. 이번 들불축제 관람여부의 결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 ① 자기 자신 ② 가족 ③ 친구/동료 ④ 회사/친목단체 ⑤ 여행사
⑥ 기타()

5. 이번 들불축제 관람여부의 결정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 ① 당일 ② 3~4일 이전 ③ 일주일 이전 ④ 1개월 이전 ⑤ 3개월 이전

6. 이번 들불축제 관람을 위해 누구와 동행하셨습니다?

- ① 자기 혼자 ② 가족 ③ 친구(연인 포함) ④ 회사동료
⑤ 친목단체 ⑥ 기타()

7. 이번 들불축제 관람은 몇 번째입니까?

- ① 처음 ② 두번째 ③ 세번째 ④ 네번째 ⑤ 다섯번째 이상

8. 오늘 축제장 안에서 소비한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 ① 2시간 미만 ② 2~3시간 ③ 4~5시간 ④ 5~6시간 ⑤ 6시간 이상

9. 축제개최 기간중 며칠이나 축제를 관람하실 예정이십니까
(관람하셨습니까)?

- ① 오늘 하루만 ② 축제기간 2일 모두

10. (관광객인 경우)제주도에 얼마 동안 머무르실 예정이십니까?

- ① 당일 ② 1박2일 ③ 2박3일 ④ 3박4일 ⑤ 4박5일 이상

11. 축제기간 동안 어디에서 숙박하실 계획이십니까?

- ① 호텔 ② 여관·여인숙 ③ 콘도 ④ 친구/친지집 ⑤ 본인집
⑥ 기타()

12.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데 동의하십니까?

- ① 적극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동의 ⑤ 적극 동의

13. 내년 혹은 가까운 장래에 들불축제를 다시 관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있다 ⑤ 매우 많다

14. 다음은 이번 들불축제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 또는 '√'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만족도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접근성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홍보 · 안내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관련 팸플렛이 충실하고 잘 비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귀하의 성별은? ① 남 성 ② 여 성
17.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1 ~ 30세 ③ 31 ~ 40세 ④ 41 ~ 50세 ⑤ 50세 이
 상
18.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재/졸 ③ 대학재/졸 ④ 대학원재/
 졸
19.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자유직 ② 관리/사무직 ③ 자영업 ④ 생산
 직
 ⑤ 판매/서비스직 ⑥ 농/수/축산업 ⑦ 학생 ⑧ 주부
 ⑨ 무직 ⑩ 기 타 (구체적으로 :)
20. 귀하의 월평균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 ~ 150만원 ③ 151 ~ 200만원
 ④ 201 ~ 250만원 ⑤ 251 ~ 300만원 ⑥ 301만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표 1>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1	0.0	0.1	0.0	0.2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1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2	0.0	0.1	4.3	4.6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3	0.0	0.2	0.2	0.7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1	0.1
광산품	1.1	0.2	1.0	0.7	3.0
음식료품	0.5	0.1	0.4	0.1	1.2
섬유,가죽제품	0.6	0.1	0.5	3.7	4.8
목재,종이제품	4.7	0.7	4.0	15.1	24.5
인쇄,출판및복제	17.7	3.5	14.3	37.2	72.7
석유,석탄제품	0.5	0.1	0.4	2.2	3.2
화학제품	8.0	1.3	6.8	22.7	38.9
비금속광물제품	6.9	1.0	6.1	5.8	19.8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1	0.3	1.8	3.2	7.4
일반기계	1.9	0.3	1.6	0.5	4.2
전기전자기계	1.0	0.2	0.8	0.1	2.1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3.2	0.3	3.0	0.2	6.7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3.0	0.4	2.6	19.2	25.2
전력,가스및수도	61.5	9.2	53.7	4.9	129.3
건설	22.0	3.8	18.5	20.0	64.4
도소매	452.7	131.5	297.2	5.7	887.0
음식점및숙박	1,244.7	127.6	1,165.2	0.1	2,537.5
운수및보관	621.7	37.1	604.3	8.6	1,271.7
통신및방송	53.5	10.7	42.6	19.4	126.2
금융및보험	103.5	16.7	88.0	10.7	218.9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84.3	99.3	493.8	86.8	1,264.3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3.0	3.0
교육및보건	8.4	1.1	7.4	0.7	17.6
사회및기타서비스	1,020.5	281.3	732.4	270.7	2,304.9
총산출효과	4,224.3	727.0	3,547.0	546.1	9,044.3
1인당	0.426	2.308	0.023	1.378	0.056

<부표 2>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0.1	0.1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1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0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4	0.1	0.4	2.9	3.7
목재,종이제품	0.2	0.0	0.1	0.5	0.9
인쇄,출판및복제	0.7	0.1	0.6	1.5	3.0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0
화학제품	0.1	0.0	0.1	0.4	0.6
비금속광물제품	0.1	0.0	0.1	0.1	0.2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1	0.0	0.1	0.2	0.4
일반기계	0.0	0.0	0.0	0.0	0.1
전기전자기계	0.1	0.0	0.1	0.0	0.2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1	0.0	0.1	0.0	0.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4	0.1	0.4	2.6	3.4
전력,가스및수도	0.6	0.1	0.6	0.1	1.4
건설	0.2	0.0	0.2	0.2	0.7
도소매	25.7	7.5	16.9	0.3	50.5
음식점및숙박	126.4	13.0	118.3	0.0	257.7
운수및보관	19.1	1.1	18.6	0.3	39.1
통신및방송	1.1	0.2	0.9	0.4	2.7
금융및보험	3.4	0.6	2.9	0.4	7.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3.7	0.6	3.1	0.5	8.0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3	0.3
교육및보건	0.9	0.1	0.8	0.1	1.8
사회및기타서비스	40.8	11.2	29.3	10.8	92.1
총고용효과	224.4	34.9	193.5	21.8	474.6
1인당	0.023	0.111	0.001	0.055	0.003

<부표 3>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1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1	0.0	0.1	2.1	2.2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2	0.0	0.2	0.1	0.6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0	0.1
광산품	0.3	0.0	0.2	0.2	0.7
음식료품	0.1	0.0	0.1	0.0	0.3
섬유,가죽제품	4.5	0.8	3.8	30.1	39.1
목재,종이제품	2.3	0.3	2.0	7.5	12.2
인쇄,출판및복제	9.6	1.9	7.8	20.3	39.7
석유,석탄제품	0.2	0.0	0.2	0.8	1.1
화학제품	1.9	0.3	1.6	5.4	9.2
비금속광물제품	1.2	0.2	1.1	1.0	3.5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1	0.3	1.8	3.2	7.4
일반기계	0.6	0.1	0.5	0.2	1.4
전기전자기계	1.0	0.2	0.8	0.1	2.1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1.7	0.2	1.6	0.1	3.5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4.6	0.7	4.0	29.7	39.0
전력,가스및수도	11.7	1.7	10.2	0.9	24.5
건설	3.7	0.6	3.1	3.4	10.8
도소매	347.0	100.8	227.8	4.4	679.9
음식점및숙박	1,528.3	156.6	1,430.6	0.1	3,115.7
운수및보관	245.3	14.7	238.5	3.4	501.9
통신및방송	22.0	4.4	17.5	8.0	51.8
금융및보험	67.2	10.9	57.1	6.9	142.1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7.8	8.1	40.4	7.1	103.5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6.7	6.7
교육및보건	14.9	2.0	13.2	1.2	31.4
사회및기타서비스	690.1	190.2	495.3	183.1	1,558.6
총소득효과	3,008.5	495.2	2,559.7	326.1	6,389.5
1인당	0.303	1.572	0.017	0.823	0.039

<부표 4>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1	0.0	0.1	0.0	0.2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1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1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2	0.0	0.1	4.3	4.6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4	0.0	0.2	0.2	0.8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1	0.1
광산품	1.5	0.2	0.9	0.7	3.3
음식료품	0.7	0.1	0.4	0.1	1.4
섬유,가죽제품	0.7	0.1	0.4	3.7	5.0
목재,종이제품	6.2	0.7	3.8	15.1	25.8
인쇄,출판및복제	23.6	3.5	13.4	37.2	77.7
석유,석탄제품	0.6	0.1	0.4	2.2	3.3
화학제품	10.7	1.3	6.4	22.7	41.1
비금속광물제품	9.2	1.0	5.7	5.8	21.7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7	0.3	1.7	3.2	8.0
일반기계	2.5	0.3	1.5	0.5	4.8
전기전자기계	1.3	0.2	0.8	0.1	2.4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4.3	0.3	2.8	0.2	7.6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4.0	0.4	2.4	19.2	26.1
전력,가스및수도	82.2	9.2	50.4	4.9	146.7
건설	29.4	3.8	17.4	20.0	70.7
도소매	605.4	131.5	278.8	5.7	1,021.3
음식점및숙박	1,664.8	127.6	1,092.9	0.1	2,885.3
운수및보관	831.5	37.1	566.8	8.6	1,444.0
통신및방송	71.5	10.7	40.0	19.4	141.6
금융및보험	138.4	16.7	82.5	10.7	248.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781.5	99.3	463.2	86.8	1,430.8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3.0	3.0
교육및보건	11.2	1.1	6.9	0.7	19.9
사회및기타서비스	1,364.8	281.3	686.9	270.7	2,603.8
총산출효과	5,649.9	727.0	3,326.9	546.1	10,249.8
1인당	0.426	2.308	0.023	1.378	0.065

<부표 5>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0.1	0.1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1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1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6	0.1	0.3	2.9	3.8
목재,종이제품	0.2	0.0	0.1	0.5	0.9
인쇄,출판및복제	1.0	0.1	0.5	1.5	3.2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1
화학제품	0.2	0.0	0.1	0.4	0.7
비금속광물제품	0.1	0.0	0.1	0.1	0.3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2	0.0	0.1	0.2	0.4
일반기계	0.1	0.0	0.0	0.0	0.1
전기전자기계	0.1	0.0	0.1	0.0	0.2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1	0.0	0.1	0.0	0.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5	0.1	0.3	2.6	3.5
전력,가스및수도	0.9	0.1	0.5	0.1	1.5
건설	0.3	0.0	0.2	0.2	0.7
도소매	34.4	7.5	15.9	0.3	58.1
음식점및숙박	169.1	13.0	111.0	0.0	293.0
운수및보관	25.5	1.1	17.4	0.3	44.3
통신및방송	1.5	0.2	0.8	0.4	3.0
금융및보험	4.6	0.6	2.7	0.4	8.2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9	0.6	2.9	0.5	9.0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3	0.3
교육및보건	1.2	0.1	0.7	0.1	2.1
사회및기타서비스	54.6	11.2	27.5	10.8	104.1
총고용효과	300.1	34.9	181.5	21.8	538.3
1인당	0.023	0.111	0.001	0.055	0.003

<부표 6>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1	0.0	0.0	0.0	0.1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1	0.0	0.1	2.1	2.3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3	0.0	0.2	0.1	0.6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0	0.1
광산품	0.4	0.0	0.2	0.2	0.8
음식료품	0.2	0.0	0.1	0.0	0.3
섬유,가죽제품	6.0	0.8	3.6	30.1	40.4
목재,종이제품	3.1	0.3	1.9	7.5	12.8
인쇄,출판및복제	12.9	1.9	7.3	20.3	42.5
석유,석탄제품	0.2	0.0	0.1	0.8	1.2
화학제품	2.5	0.3	1.5	5.4	9.8
비금속광물제품	1.6	0.2	1.0	1.0	3.9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8	0.3	1.7	3.2	8.0
일반기계	0.8	0.1	0.5	0.2	1.6
전기전자기계	1.3	0.2	0.8	0.1	2.4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2.3	0.2	1.5	0.1	4.0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6.1	0.7	3.8	29.7	40.3
전력,가스및수도	15.6	1.7	9.5	0.9	27.8
건설	4.9	0.6	2.9	3.4	11.9
도소매	464.1	100.8	213.7	4.4	782.9
음식점및숙박	2,044.1	156.6	1,341.8	0.1	3,542.7
운수및보관	328.1	14.7	223.7	3.4	569.9
통신및방송	29.4	4.4	16.4	8.0	58.2
금융및보험	89.9	10.9	53.6	6.9	161.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4.0	8.1	37.9	7.1	117.1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6.7	6.7
교육및보건	20.0	2.0	12.4	1.2	35.6
사회및기타서비스	923.0	190.2	464.5	183.1	1,760.8
총소득효과	4,023.8	495.2	2,400.9	326.1	7,246.0
1인당	0.303	1.572	0.017	0.823	0.046

<부표 7>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산출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1	0.0	0.1	0.0	0.2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1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2	0.0	0.1	4.3	4.6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3	0.0	0.2	0.2	0.8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1	0.1
광산품	1.3	0.2	0.9	0.7	3.2
음식료품	0.6	0.1	0.4	0.1	1.3
섬유,가죽제품	0.6	0.1	0.5	3.7	4.9
목재,종이제품	5.4	0.7	3.9	15.1	25.2
인쇄,출판및복제	20.6	3.5	13.8	37.2	75.2
석유,석탄제품	0.6	0.1	0.4	2.2	3.2
화학제품	9.3	1.3	6.6	22.7	40.0
비금속광물제품	8.0	1.0	5.9	5.8	20.7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4	0.3	1.7	3.2	7.7
일반기계	2.2	0.3	1.5	0.5	4.5
전기전자기계	1.1	0.2	0.8	0.1	2.2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3.8	0.3	2.9	0.2	7.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3.5	0.4	2.5	19.2	25.6
전력,가스및수도	71.7	9.2	52.0	4.9	137.8
건설	25.7	3.8	17.9	20.0	67.4
도소매	527.6	131.5	288.0	5.7	952.7
음식점및숙박	1,450.8	127.6	1,129.0	0.1	2,707.5
운수및보관	724.6	37.1	585.6	8.6	1,355.9
통신및방송	62.3	10.7	41.3	19.4	133.7
금융및보험	120.6	16.7	85.2	10.7	233.3
부동산및사업서비스	681.1	99.3	478.5	86.8	1,345.7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3.0	3.0
교육및보건	9.7	1.1	7.2	0.7	18.7
사회및기타서비스	1,189.4	281.3	709.7	270.7	2,451.1
총산출효과	4,923.7	727.0	3,436.9	546.1	9,633.7
1인당	0.426	2.308	0.023	1.378	0.060

<부표 8>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I)

단위 : 명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0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0	0.0	0.0	0.1	0.1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0	0.0	0.0	0.0	0.1
수산어획	0.0	0.0	0.0	0.0	0.0
수산양식	0.0	0.0	0.0	0.0	0.0
광산품	0.0	0.0	0.0	0.0	0.1
음식료품	0.0	0.0	0.0	0.0	0.0
섬유,가죽제품	0.5	0.1	0.4	2.9	3.8
목재,종이제품	0.2	0.0	0.1	0.5	0.9
인쇄,출판및복제	0.8	0.1	0.6	1.5	3.1
석유,석탄제품	0.0	0.0	0.0	0.0	0.0
화학제품	0.2	0.0	0.1	0.4	0.7
비금속광물제품	0.1	0.0	0.1	0.1	0.3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0.1	0.0	0.1	0.2	0.4
일반기계	0.1	0.0	0.0	0.0	0.1
전기전자기계	0.1	0.0	0.1	0.0	0.2
정밀기구	0.0	0.0	0.0	0.0	0.0
수송장비	0.1	0.0	0.1	0.0	0.2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0.5	0.1	0.3	2.6	3.5
전력,가스및수도	0.8	0.1	0.5	0.1	1.4
건설	0.3	0.0	0.2	0.2	0.7
도소매	30.0	7.5	16.4	0.3	54.2
음식점및숙박	147.4	13.0	114.7	0.0	275.0
운수및보관	22.3	1.1	18.0	0.3	41.6
통신및방송	1.3	0.2	0.9	0.4	2.8
금융및보험	4.0	0.6	2.8	0.4	7.7
부동산및사업서비스	4.3	0.6	3.0	0.5	8.5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0.3	0.3
교육및보건	1.0	0.1	0.7	0.1	1.9
사회및기타서비스	47.6	11.2	28.4	10.8	98.0
총고용효과	261.6	34.9	187.5	21.8	505.8
1인당	0.023	0.111	0.001	0.055	0.003

<부표 9> 2002년 들불축제가 지역소득에 미치는 효과분석(시나리오 III)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제주도민	시설투자	계
벼	0.0	0.0	0.0	0.0	0.1
맥류및잡곡	0.0	0.0	0.0	0.0	0.0
채소및과실	0.0	0.0	0.0	0.0	0.0
감귤	0.0	0.0	0.0	0.0	0.0
기타 식용작물	0.0	0.0	0.0	0.0	0.0
감자	0.0	0.0	0.0	0.0	0.0
화훼및비식용작물	0.1	0.0	0.1	2.1	2.3
축산	0.0	0.0	0.0	0.0	0.0
양돈	0.0	0.0	0.0	0.0	0.0
임산물	0.3	0.0	0.2	0.1	0.6
수산어획	0.0	0.0	0.0	0.0	0.1
수산양식	0.0	0.0	0.0	0.0	0.1
광산품	0.3	0.0	0.2	0.2	0.8
음식료품	0.2	0.0	0.1	0.0	0.3
섬유,가죽제품	5.2	0.8	3.7	30.1	39.8
목재,종이제품	2.7	0.3	1.9	7.5	12.5
인쇄,출판및복제	11.2	1.9	7.5	20.3	41.1
석유,석탄제품	0.2	0.0	0.1	0.8	1.1
화학제품	2.2	0.3	1.6	5.4	9.5
비금속광물제품	1.4	0.2	1.1	1.0	3.7
제1차금속	0.0	0.0	0.0	0.0	0.0
금속제품	2.4	0.3	1.7	3.2	7.7
일반기계	0.7	0.1	0.5	0.2	1.5
전기전자기계	1.1	0.2	0.8	0.1	2.3
정밀기구	0.0	0.0	0.0	0.0	0.1
수송장비	2.0	0.2	1.5	0.1	3.8
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5.3	0.7	3.9	29.7	39.6
전력,가스및수도	13.6	1.7	9.9	0.9	26.1
건설	4.3	0.6	3.0	3.4	11.3
도소매	404.4	100.8	220.8	4.4	730.3
음식점및숙박	1,781.3	156.6	1,386.2	0.1	3,324.3
운수및보관	286.0	14.7	231.1	3.4	535.1
통신및방송	25.6	4.4	17.0	8.0	54.9
금융및보험	78.3	10.9	55.3	6.9	151.5
부동산및사업서비스	55.7	8.1	39.2	7.1	110.1
공공행정및국방	0.0	0.0	0.0	6.7	6.7
교육및보건	17.4	2.0	12.8	1.2	33.5
사회및기타서비스	804.3	190.2	479.9	183.1	1,657.5
총소득효과	3,506.6	495.2	2,480.3	326.1	6,808.2
1인당	0.304	1.572	0.017	0.823	0.043

2002정월대보름 들불축제 평가보고서

인 쇄 일 2002. 3

발 행 일 2002. 3

발 행 인 고 충 석(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인 쇄 처 으뜸출판문화사(☎ 724~4818)

ISBN 89-88021-21-5 933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